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6년 8월

교육학석사(특수교육)학위논문

#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특성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백 세 형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 행동 특성

Emotion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Elementary  
Schoolers with Disabilities at Special Classes

2016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백 세 형

#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특성

지도교수 이 승 희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특수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백 세 형

## 백세형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 영 일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허 유 성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 승 희 (인)

2016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목 차

표목차 .....	v
그림목차 .....	vi
ABSTRACT .....	vii
<b>I. 서론 .....</b>	<b>1</b>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	7
3. 용어의 정의 .....	8
<b>II. 이론적 배경 .....</b>	<b>10</b>
1. 특수학급의 개념 .....	10
1) 특수학급의 정의 .....	10
2) 특수학급의 현황 .....	10
3)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 현황 .....	11
2. 장애영역별 정서행동특성 .....	12
1) 시각장애 .....	12
2) 청각장애 .....	13
3) 지적장애 .....	14
4) 지체장애 .....	14
5) 정서·행동장애 .....	15
6) 자폐성장애 .....	16

7) 의사소통장애 .....	17
8) 학습장애 .....	17
9) 건강장애 .....	18
10) 발달지체 .....	19
3. 우리나라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	19
1) 실시 현황 .....	19
2) 실시 결과 .....	22
4. 관련 선행연구 .....	24
1)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특성 .....	24
2) 특수학교 장애학생의 정서행동특성 .....	24
3) 초등학교 일반학생의 정서행동특성 .....	25

**Ⅲ. 연구방법 ..... 29**

1. 연구설계 .....	29
2. 연구대상 .....	29
3. 연구도구 .....	31
4. 연구절차 .....	33
5. 자료분석 .....	33

**Ⅳ. 연구결과 ..... 35**

1.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정도 .....	35
2.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유형 .....	36
3.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의 성별, 연령, 학급규모, 장애영역에 따른 차이 .....	37

- 1) 정서행동문제 정도의 성별에 따른 차이 ..... 37
- 2) 정서행동문제 정도의 연령에 따른 차이 ..... 38
- 3) 정서행동문제 정도의 학급규모에 따른 차이 ..... 39
- 4) 정서행동문제 정도의 장애영역에 따른 차이 ..... 39
- 4.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유형의 성별,  
연령, 학급규모, 장애영역에 따른 차이 ..... 40
  - 1) 정서행동문제 유형의 성별에 따른 차이 ..... 40
  - 2) 정서행동문제 유형의 연령에 따른 차이 ..... 42
  - 3) 정서행동문제 유형의 학급규모에 따른 차이 ..... 42
  - 4) 정서행동문제 유형의 장애영역에 따른 차이 ..... 43

**V. 논의 ..... 46**

- 1.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정도 ..... 46
- 2.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유형 ..... 47
- 3.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의 성별,  
연령, 학급규모, 장애영역에 따른 차이 ..... 50
  - 1) 정서행동문제 정도의 성별에 따른 차이 ..... 50
  - 2) 정서행동문제 정도의 연령에 따른 차이 ..... 52
  - 3) 정서행동문제 정도의 학급규모에 따른 차이 ..... 55
  - 4) 정서행동문제 정도의 장애영역에 따른 차이 ..... 56
- 4.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유형의 성별,  
연령, 학급규모, 장애영역에 따른 차이 ..... 58
  - 1) 정서행동문제 유형의 성별에 따른 차이 ..... 58
  - 2) 정서행동문제 유형의 연령에 따른 차이 ..... 61



3) 정서행동문제 유형의 학급규모에 따른 차이 .....	63
4) 정서행동문제 유형의 장애영역에 따른 차이 .....	65
<b>VI. 결론 및 제언 .....</b>	<b>68</b>
1. 결론 .....	68
2. 제언 .....	71
<b>참고문헌 .....</b>	<b>73</b>
<b>부록 .....</b>	<b>83</b>

## 표 목 차

<표 II-1> 시도별 특수학급 현황 .....	11
<표 II-2> 시도별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 현황 .....	12
<표 II-3> 초등학교 일반학생의 정서행동특성에 대한 선행연구 요약 .....	27
<표 III-1> 교사와 대상학생의 기초사항 .....	30
<표 III-2> 전체학생의 기초사항 .....	31
<표 III-3> TRF 문제행동척도의 한국판·미국판·본연구 신뢰도 .....	32
<표 IV-1>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 문제 정도 .....	35
<표 IV-2>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 문제 유형 .....	36
<표 IV-3>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의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 .....	38
<표 IV-4>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의 연령에 따른 차이분석 .....	38
<표 IV-5>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의 학급규모에 따른 차이분석 .....	39
<표 IV-6>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의 장애영역에 따른 차이 .....	40
<표 IV-7>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유형의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 .....	41
<표 IV-8>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유형의 연령에 따른 차이분석 .....	42
<표 IV-9>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유형의 학급규모에 따른 차이분석 .....	43
<표 IV-10>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유형의 장애영역에 따른 차이 .....	45

## 그림 목 차

[그림 II-1]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 및 관리 흐름도 .....	21
[그림 II-2] 아동정서·행동특성 검사지(초등학생용-CPSQ) .....	22
[그림 II-3]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 및 결과분석표 .....	23

## ABSTRACT

### Emotion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Elementary Schoolers with Disabilities at Special Classes

By Se-hyung Baek

Advisor: Seunghee Lee, Ph.D.

Major in Speci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motional behaviors characteristic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special classes of elementary schools, and detailed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what is the degree of emotional behavioral problems by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special classes of elementary schools? Second, what are the types of emotional behavioral problems by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special classes of elementary schools? Third, are there any differences in degree of emotional behavioral problems among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special classes of elementary schools depending on gender, age, class size, and the area of disabilities? Fourth, are there any differences in types of emotional behavioral problems among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special classes of elementary schools depending on gender, age, class size, and the area of disabilities?

For this, I have selected 256 special education teachers in charge of reaching students with disabilities as subjects of this study to find out about the emotional behaviors characteristics of 256 students with disabilities purposively sampled among 1,070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total attending special classes in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Jeonnam Province. The investigations, which included research designing and preparations of survey questionnaires, were conducted for about three months between August 15 and November 12, 2015.

SPSS 23.0 statistics program was used for data analysis for each research question.

The conclusions obtained through research findings and discussions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the degree of emotional behavioral problem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special classes of elementary schools, the averages of T scores for eight low-ranked syndromes of emotional behavioral problems were 70.08 for social immaturity, followed by 68.51 for attention concentration problem, 65.54 for thinking problem, 65.14 for aggressive behavior, 62.78 for rule violations, 62.23 for anxiety/depression, 61.23 for misery/depression and 55.64 for physical symptoms. Second, looking at the types of emotional behavioral problem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special classes of elementary schools, social immaturity claimed the highest ratio of the clinical types among eight low-ranked syndromes of emotional behavioral problems, followed by attention concentration problem and thinking problem. In addition, 70 students or 43.7% showed the presence of internalization problem, 99 students or 61.8% revealed the presence of externalization problem, and 116 students or 72.5% demonstrated the presence of total behavior problem that are applicable to both internalization and externalization problems, all of whom are within the clinical range. Third, when it comes to whether or not to have any differences in the degree of emotional behavioral problem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special classes of elementary schools emotional behavioral

problems depending on the gender, age, class size, and areas of disabilities, firs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in terms of internalization problem but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externalization problem and total behavior problem based on gender. Next, when it comes to difference depending on ag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have been found in internalization problem, externalization problem, and total behavior problem as well. Third, when it comes to difference depending on class size,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difference in externalization problem between a small class and a large class while no significant difference has been found in internalization problem and total behavior problem based on the class size. Finally, the presence of any difference in emotional behavioral problems depending on the areas of disabilities could not be confirmed by the results of this study. Fourth, taking a look at the presence of any difference in types of emotional behavioral problems among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special classes of elementary schools depending on gender, age, class size, and areas of disabilities, first, there was a difference in internalization problem in the normal, quasi-clinical and clinical levels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while no significant difference has been identified in internalization problem and total behavior problem in the normal, quasi-clinical and clinical levels. Next, no significant difference has been found in internalization problem, externalization problem, and total behavior problem in the normal, quasi-clinical and clinical levels based on age. Third, when it comes to a difference depending on class size,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externalization problem in the normal, quasi-clinical and clinical levels between a small class and a large one while no significant difference has been found in internalization problem, total behavior problem. Lastly, the presence of any difference in types of emotional behavioral problems based on the areas of disabilities could not be identified by the results of this study.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학업문제, 또래집단에서의 따돌림, 적응장애, 이유없이 행하는 묻지마식의 난폭한 가해 행동, 학생들 간의 폭력, 자살 등과 같은 학령기 학생들의 정서 행동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정신건강의 측면에서도 의료, 보건 영역 뿐 아니라 학교에서의 아동의 행동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와 더불어 아동·청소년 시기는 급격한 뇌 발달이 일어나는 시기이며 성인의 전 단계로 미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이다(교육부, 2015). 따라서 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가 무엇인지?’ 또한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근래 아동 및 청소년들의 정서행동문제가 다소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면서 학생들의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예방 및 조기중재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승희, 2012)이 있고, 이러한 경향에 따라 정서행동문제의 개념 파악 또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서행동문제나 정서행동장애를 정의함에 있어 지금까지 합의된 정의나 결론이 없어(정대영, 2013) 주로 법적 정의에만 의존하면서 정서행동문제 및 정서행동장애를 이해하고 중재하는 것에 있어 한계를 가져왔다. 이러한 한계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이승희(2012)는 목적(즉, 누가 무엇 때문에 필요로 하는가)에 따라 정서행동장애의 정의를 법적 정의(legal definition), 임상적 정의(clinical definition), 교육적 정의(educational definition)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법적 정의(legal definition)는 국가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이라는 행정적 목적을 가지고 특수교육 관련법에 명시한 정의라고 하였고, 다음으로 임상

적 정의(clinical definition)는 정신건강전문가들이 정신장애의 진단이라는 임상적 목적을 가지고 진단체계에 명시한 정의라고 하였고, 마지막으로 교육적 정의(educational definition)는 교육전문가들이 정서행동장애의 중재와 예방이라는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비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정의라고 하였다. 즉, 모든학생(A), 교육적 정의의 정서행동장애 학생(B), 임상적 정의의 정서행동장애 학생(C), 법적 정의의 정서행동장애 학생(D), 그 포함관계는  $A \supset B \supset C \supset D$ 로 이루어져 있다. 이 분류를 중심으로 제시된 정서행동장애의 정의 가운데 가장 포괄적인 정서행동장애의 교육적 정의는 정서행동문제의 정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 교육적인 의미에서 정서행동문제의 정의는 “자신의 발달이나 타인의 생활 혹은 양자 모두를 뚜렷이 방해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하거나 필요할 위험이 있는 부정적인 정서와 행동”으로 제안하고 있다(이승희, 2012).

위에서 언급한 정서행동문제의 정의에 비추어 아동의 정신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정신건강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나 이미 문제를 가진 학생을 선별하여 위험수준에 따라 적절한 중재를 제공함으로써 문제의 발생과 악화를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김수진, 이정숙, 권영란, 오미라, 김보영, 2009). 근래에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일반아동 및 청소년들의 정서행동문제가 다소 심각해지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전국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2007년(97개 학교 31,187명), 2008년(245개 학교 7,380명), 2009년(470개 학교 126,159명), 2010년(1,126개 학교, 242,055명)에 ‘학생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밀검진 필요학생(우울, 불안, 자살,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 음주, 흡연 약물, 비행 및 폭력, 인터넷중독, 성행동, 섭식장애 등의 정서행동문제 경향이 있는 아동)의 비율이 2007년 15.8%, 2008년 12.9%, 2009년 17.0%, 2010년 12.8%로 나타났다(김춘진, 2010). 이와 같이 우리나라 아동 및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부각되면서 2012년에는 우리나라 모든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학교 내 상담·관



리 등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학생이 16.3%로 나타났다(교육과학기술부, 2013).

이와 같은 학령기 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먼저 초등학생의 경우 2012년 전국 초등학교 1~6학년 학생 2,813,483명을 대상으로 ‘학생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16.6%가 관심군(1차 검사 결과 학교내 상담·관리 등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학생)으로 2.4%가 주의군(2차 검사 결과 심층상담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교육과학기술부, 2013). 비록 이 자료는 초등학생 저학년(1~3학년)과 고학년(4~6학년) 각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은 발달단계상 사춘기가 도래하는 시기로 신체적 변화를 거치면서 심리적으로 혼란을 겪을 수 있는 과도기적 시기이므로 정서행동문제에 있어서도 초등학교 저학년과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조수철(2006)에 의하면 초등학생들의 경우 저학년일수록 정서행동문제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고학년일수록 주요 우울장애와 물질남용 그리고 의존범주의 장애비율이 높다. 또한 정선미와 김진호(2009)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회불안이 높아질 뿐 아니라 자신의 정서를 더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표현을 잘 하지 못하므로 신체화 증상을 많이 보이게 된다고 하였다. 이에 더하여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 내에서도 차이가 나타나는데, 초등학교 4학년이 6학년보다 과잉행동을 더 많이 보이며(한미현, 1996) 초등학교 6학년은 4학년에 비해 학교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지선, 2011). 다음으로 중학생의 경우, 2012년 전국 중학교 1~3학년 학생 1,812,841명을 대상으로 ‘학생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18.3%가 관심군(1차 검사 결과 학교내 상담·관리 등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학생)으로 7.1%가 주의군(2차 검사 결과 심층상담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고등학생의 경우,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1,856,150명을 대상으로 ‘학생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13.8%가 관심군(1차 검사 결과 학교내 상담·관리 등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학생)

으로 5.4%가 주의군(2차 검사 결과 심층상담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교육과학기술부, 2013).

이와 같이 학령기 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를 학교급별로 살펴보았을 때, 초등학생은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으로 미분화상태이기는 하지만 성장발달이 매우 왕성하게 나타나는 시기이다(정성태, 1998). 이처럼 초등학생은 뚜렷하고 급속한 신체, 정서, 지적 발달을 경험함으로써 과도기적이고 미숙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고영희, 2012). 즉, 이러한 과도기적인 특징과 경험부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외부환경에 대해 보편적인 판단이나 공감능력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초등학생은 성인에 비해 외부환경에 대한 순발력이나 경험적 대응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특히 후기 아동기인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발달 단계상 사춘기 진입시기로 청소년기와 비슷한 신체적, 정신적 성숙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심리적 갈등과 적응의 문제를 겪기도 한다(백승영, 2014). 그리고 이러한 정서행동문제는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시기부터 이러한 문제가 방치될 경우 만성화 되거나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해 나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를 거쳐 성인 범죄로까지 이어질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둔다면 초등학생의 정서행동문제에 반드시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이러한 초등학교 시기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주목해 보았을 때, 초등학생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조기 중재 및 개입의 중요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기 중재 및 개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현행 수준 및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관련 변인으로는 다수의 연구에서 밝혔듯이 성별, 학교급에 대한 변인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던 백승영(2014), 오경자와 김영아(2011), 홍태경, 류준혁(2010)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변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학교급에 따른 차이를 연구한 백승영

(2014), 김수주(2002), 이은아와 정혜정(2000)의 연구에서는 고등학생 집단이 초저 집단과 초고 집단보다 정서행동문제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위에서도 밝혔듯이 학교급(초,중,고)에 따른 비교가 거의 대부분이고 본 연구 주제인 초등학생의 정서행동문제를 살펴봄에 있어 그 차이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안에서 연령 간의 차이를 관련 변인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학급규모에 대한 변인이 있을 수 있다. 선행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지만 초등학교 안에서 학급규모가 크거나 작은 상황에서 정서행동문제가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한 고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장애영역에 따른 차이가 어떠한 지에 대한 변인이 있을 수 있다. 이것 또한 선행연구가 전무한 상황이고 초등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의 장애영역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한 관련 변인은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학생들의 정서행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변인들은 다양하고 정서·행동 발달상의 문제를 발견하고 악화하는 것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필요성은 이전부터 강조되어 왔다.

2012년 전수조사 실시 이후 학생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라는 용어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라는 용어로 바뀌었으며 2013년~2015년까지 초등학교 1,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서·행동 발달상의 문제를 발견하고 악화하는 것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꾸준히 실시하여 왔다. 2013년 이후부터 실시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교육부 시스템을 통한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온라인 검사에 참여하거나 학생이나 학부모가 동의서 및 검사지를 서면 작성 후 그 결과물을 교사가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절차를 통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2013년도 전체학생 2,119,962명 중 ‘관심군’ 학생이 152,640명(7.2%)이며, 관심군 학생(152,640명) 중에서 자살생각 등 위험수준이 높아 우선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된 학생은 46,104명(2.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도에는 전체 검사 실시학생 1,910,257명 중 ‘관심군’ 학생이 60,709명

(3.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통계 결과와 같이 정서·행동 발달상에서 관심군으로 나타나는 학생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보호자의 동의 여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검사로 의무적인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장애학생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처리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검사자체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이다. 왜냐하면 검사지 자체가 장애학생의 장애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장애학생이 참여할 경우 ‘관심군’ 혹은 ‘주의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즉, 장애학생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 참여하여 검사를 실시하더라도 결과처리에서는 제외되어 통계에는 집계되지 않고 단순히 검사에 참여만 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무는 문제가 있다. 또한 장애학생 학부모의 소극적인 참여와 인식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관리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어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학부모의 적극적인 태도와 관심, 인식이 매우 중요하며(현명선, 남경아, 안영미, 김미영, 2005),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장애학생의 경우, 검사 조건 및 단계의 단순화, 철저한 사후 관리 체계 마련 등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일반학생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에게도 동등하게 적용이 되고 개개인의 모든 학생의 정서적 발달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만 한다. 그런 취지에 부합하기 위한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학교차원의 긍정적행동지원(이소현, 박은혜, 2011)의 중재 수준처럼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만의 특별한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모든 학생에게 중점을 두며, 모든 상황에서의 정서적 행동을 고려할 수 있는 보편적인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보편적인 중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의 위험을 수반한 학생들의 정서적 특성과 이러한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집중적이고 정확한 표적 중재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학생들처럼 특수화된 개별적 중재가 필요한 학생들을 관리하여 배제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구안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관리시스템이 일반학생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 모두에게 의미가 있는 하나의 체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특별히 고려하고 있지 않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 특히 장애학생의 특성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와 유형을 알아보고 그 정도와 유형이 성별, 연령, 학급규모, 장애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장애학생에게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동등하게 실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단순히 정신질환 가능성을 진단하는 검사가 아닌, 학생 개개인의 정서행동특성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장애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근거하여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특성을 파악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정도는 어떠한가?
- 2)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유형은 어떠한가?
- 3)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정도는 성별, 연령, 학급규모, 장애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4)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유형은 성별, 연령, 학급규모, 장애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3. 용어의 정의

#### ① 특수학급

본 연구에서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교육과학기술부, 2008)에 의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면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 ② 장애학생

본 연구에서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교육과학기술부, 2008)에 의거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를 말한다.

#### ③ 특수학급 장애학생

본 연구에서 특수학급 장애학생이란 특수학급 학생 중 정서행동과 관련하여 가장 관심이 가는 학생 1명을 말한다.

#### ④ 정서행동문제

본 연구에서 정서행동문제란 「한국판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교사용(K-TRF)」(오경자, 김영아, 2011)의 내재화척도, 외현화척도, 총문제행동척도로 측정되는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총행동문제를 말한다.

⑤ 정서 행동문제 정도

본 연구에서 정서 행동문제 정도란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총 행동문제의  $T$  점수를 말한다.

⑥ 정서 행동문제 유형

본 연구에서 정서 행동문제 유형이란 다음과 같은 구분을 의미한다.

- 정상: 정서 행동문제의  $T$  점수가 6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 준임상: 정서 행동문제의  $T$  점수가 60 이상, 64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 임상: 정서 행동문제의  $T$  점수가 64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특수학급의 개념

#### 1) 특수학급의 정의

특수학급은 일반학급에서 교육하기 어려운 장애학생들에게 알맞은 학교교육 과정으로 조정 운영하기 위해 설치된 학급으로 조직적이고 학교의 기본적인 구성단위이다(김승국, 2003). 즉,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교육과학기술부, 2008)에 의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면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 2) 특수학급의 현황

시도별 초등학교 특수학급 현황은 서울 667학급, 부산 326학급, 대구 223학급, 인천 290학급, 광주 132학급, 대전 153학급, 울산 117학급, 세종 27학급, 경기 1,225학급, 강원 211학급, 충북 205학급, 충남 314학급, 전북 218학급, 경북 317학급, 경남 379학급, 제주 60학급,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전남의 초등학교 특수학급은 257학급으로 총 5,121학급으로 나타났다. 2015년 특수교육실태조사(국립특수교육원, 2015) 시도별 특수학급 현황은 다음 <표 II-1>과 같다.



<표 II-1> 시도별 특수학급 현황(국립특수교육원, 2015)

시·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계
서울	54	667	291	244	-	1,256
부산	18	326	125	89	-	558
대구	15	223	97	71	1	407
인천	54	290	114	92	3	553
광주	13	132	69	54	-	268
대전	36	153	74	47	-	310
울산	11	117	56	45	-	229
세종	10	27	15	10	-	62
경기	175	1,225	651	540	22	2,613
강원	16	211	78	54	-	359
충북	28	205	95	65	3	396
충남	40	314	138	103	-	595
전북	12	218	75	44	-	349
전남	28	257	139	85	-	509
경북	9	317	144	101	-	571
경남	28	379	188	125	-	720
제주	4	60	29	20	-	113
계	551	5,121	2,378	1,789		9,839

### 3)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 현황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장애영역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전남의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 현황은 지적장애가 68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발달지체 97명, 자폐성장애 92명, 지체장애 72명, 정서·행동장애 47명, 의사소통장애 26명, 청각장애 24명, 학습장애 12명, 시각장애 6명, 건강장애 3명 순으로 총 1,064명으로 나타났다. 2015년 특수교육실태조사(국립특수교육원, 2015) 시도별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 현황은 다음 <표 II-2>와 같다.

<표 II-2> 시도별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 현황(국립특수교육원, 2015)

시·도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계
서울	17	33	1,553	198	92	452	51	51	12	289	2,748
부산	5	10	598	96	125	159	52	73	10	96	1,224
대구	6	16	453	88	32	75	62	15	3	67	817
인천	7	29	914	139	88	167	70	55	5	35	1,509
광주	1	18	313	41	16	112	17	2	6	8	534
대전	6	9	466	110	9	129	11	3	-	3	746
울산	3	12	274	68	49	60	14	5	3	58	546
세종	-	3	54	8	3	13	-	3	2	7	93
경기	54	98	3,167	632	153	731	104	108	18	166	5,231
강원	6	22	407	77	19	80	39	27	11	46	734
충북	2	9	522	62	58	57	32	6	1	46	795
충남	6	12	789	110	27	107	39	82	5	62	1,239
전북	3	7	468	43	35	83	49	19	3	42	752
전남	6	24	685	72	47	92	26	12	3	97	1,064
경북	14	16	687	148	55	133	64	34	6	23	1,180
경남	17	33	778	164	81	185	57	99	15	115	1,544
제주	-	2	148	12	6	48	16	-	1	2	235
	153	353	12,276	2,068	895	2,683	703	594	104	1,162	20,991

## 2. 장애영역별 정서행동특성

### 1) 시각장애

시각장애는 건전한 자아상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시각장애 자체나 사회적 장애의 영향보다 자아에 대한 왜곡된 태도와 내적인 심리적 요인이 더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한국통합교육학회, 2009). 시각장애아동은 사회적인 상황에서 대화를 적절히 시작하기, 대화를 주고받기 등을 통해 상호작용

을 시작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비언어적 의사소통 신호인 미소, 눈짓, 몸동작을 볼 수 없기에 의사소통 상대자의 의사소통의 의도를 완전하게 파악하지 못한다. 또한, 의사소통 상대자를 쳐다보기, 고개를 들고 바른 자세 취하기, 말할 때 상대자와 적절한 거리 유지하기 등은 시각적 모방학습을 통해 습득되는 것으로 시각장애아동은 이런 면에서 부족함을 보일 수 있다(박순희, 2014).

## 2) 청각장애

청각장애아동들은 언어발달 및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다. 사회적 상호작용의 곤란은 적응상의 문제로 이어진다. 그래서 청각장애아동은 건청아동들에 비해 정서적 불안정, 신경증 및 부적응 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 농과 언어의 장벽은 좌절감, 고독감, 무력감, 절망감 등을 증가시키게 되는데, 사회적 부적응의 형태와 정도는 청력손실의 정도와 장애 유형에 따라 다르다(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학회, 2012). 청력손실의 정도가 클수록 사회적 고립이 더 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각장애아동의 정서장애 발생률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대개 8~22%로 추정할 수 있다. 농아동들의 어머니를 통해 얻은 자료를 보면 농아동들은 건청아동에 비해 안정감이 없고, 소유욕이 강하며, 의존적이고, 복종심이 적으며, 소란하고, 우울하며, 파괴적이고, 정직하지 못한 성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들의 비정상적인 사회적 발달은 충동적이고 무책임하고 의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다른 사람의 감정에 무관심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오해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기적 성향이 강하다. 이로 인해 그들은 특이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좌절하게 된다. 그러나 농아동들의 이러한 특성들은 그들이 본래 타고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 야기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관심의 초점을 문제 자체가 아닌 사회적 장벽에 두어야 할 것

이다. 여기서 우리는 언어 및 의사소통의 장벽이 청각장애아동들이 가지는 문제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한국통합교육학회, 2009).

### 3) 지적장애

지적장애 학생의 정서발달은 일반학생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발달적 지연이 나타난다. 누군가와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해석하고 말하는 활동에 의존하여 선택된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지적장애 학생들은 이 부분에서 복잡한 문제를 보인다. 지적장애 학생은 갈등 해결, 지시 따르기, 대화, 또래와의 상호작용 등에서 어려움을 지닌다. 정서적 표현을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지적장애 학생은 학습된 무기력으로 낮은 자아존중감과 불안이나 우울의 문제를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실패 상황에서 인내하는 것이 부족하며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이차적인 사회적 행동이나 적응에 어려움을 일으키게 된다. 지적장애 학생은 일반학생들보다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다. 비판적인 수용이나 자기 통제에 어려움을 보이고 파괴적인 행동, 과잉 행동, 산만함 등 특정 영역에서의 문제도 나타난다. 일반적으로는 지적장애의 수준이 심각할수록 또래에 비해서 문제행동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 지적장애 학생의 20~35%는 정신장애의 영향을 받는다. 산만함, 과잉행동,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위축, 성격장애 등을 포함한다(송준만 외, 2013).

### 4) 지체장애

지체장애아동은 외모나 신체기능장애와 같은 신체적 문제와 함께 부모, 형제, 교사, 또래집단의 반응 등과 같은 주위 환경적 문제로 인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심리적 특징을 나타낼 수 있다. 그들은 부모로부터 과보호될 경우 소극적이고 의존적인 성격을 가지고 쉽고, 반대로 거부적이거나 지배적일 경우 부정적, 퇴행적, 무관심, 공격적 성격을 형성할 수 있다(김삼섭, 박은송, 2012). 그 외 지체장애학생은 외모, 신체장애 및 병이나 사고에 대한 불안 등으로 인하여 열등감, 정서적 불안, 학습 의욕의 부족, 부정적 자아개념, 회피 및 대상 심리, 적극성 부족과 같은 부적절한 심리 특성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들은 지체장애학생의 일반적인 심리 특성이라기보다는 개인차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한편, 뇌성마비아동은 지체장애로 인한 부정적인 성격 외에도 뇌손상으로 인한 특별한 행동 특성들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은 아동에 따라 개인차가 크다(박은혜, 김정연, 2010).

## 5) 정서·행동장애

정서·행동장애 아동은 공격적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보이거나 미성숙하면서도 내부적으로 위축된 행동을 보이는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 행동 특성을 보인다. 먼저 공격적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인 외현화문제는 주로 반항장애나 품행장애의 형태로 나타나곤 하는데(이효신, 2007), 때리기, 싸우기, 친구 놀리기, 소리 지르기, 반항하기, 울기, 기물 파괴하기, 강탈하기 등의 구체적인 행동이 이에 속한다. 또한 사회적으로 미성숙하거나 위축되는 등의 내재화문제는 주로 불안장애나 기분장애 또는 사회적으로 매우 위축된 행동 등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는 아동기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후에도 정신 건강 측면에서 좋지 않은 예후를 보이곤 한다. 사회적으로 위축된 아동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대표적인 행동 특성은 혼자 노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고, 긍정적인 또래 상호작용을 잘 보이지 않으며, 발화율이 낮다는 것이다(이성봉, 방명애, 박지연, 김은경, 2014). 이것은 정상적인 발달 특성

인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발달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친구가 거의 없고 놀이 기술 등 필요한 사회적 기술의 결핍을 보이게 되며, 더 나아가서는 환상이나 백일몽에 빠지기도 하고, 신체적인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며, 초기 발달기로 퇴보하여 끊임없는 도움과 관심을 요구하기도 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 6) 자폐성장애

자폐성장애아동들의 사회·정서적 특성을 얘기할 때 1943년 Kanner의 초기 연구 이후 다양한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보고하는 것은 제한된 사회적 상호작용이다. 또한 높은 수준의 불안, 과도한 공포, 공황발작 등이 그들의 사회·정서적 특성에 포함된다. 자폐성장애아동들의 또 다른 사회·정서발달의 특징은 제한된 놀이 활동과 상징놀이의 결함인데, 놀이 자체 보다도 이를 통해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시도하는 부분을 매우 어려워한다. 그들은 가족구성원 혹은 자신보다 연령이 높거나 낮은 아동들과는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또래들과의 관계, 특히 협동놀이 등과 같은 유형의 놀이를 통한 관계 형성에는 실패한다. 자폐성장애아동들이 또래와의 관계 형성에 실패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다른 사람과의 공통된 관심사에서 과생되는 흥미나 즐거움에 대해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일반 아동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끌려는 시도를 하지만 자폐성장애 아동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것에 대해 다른 사람의 공통관심을 요구하지 않는다(조수철, 김다정, 김봉년, 김수진, 김은영, 2011). 자폐성장애아동들의 행동 특성에 대한 연구자들의 공통된 보고는 다음과 같다. 먼저 그들은 사람보다는 사물을 더 좋아하며 사물도 전체보다는 특정 부분을 더 선호한다. 또 다른 행동적 특성은 특정 사물의 형태나 주변 환경에 대해 집착에 가까운 동일성의 고집이다. 환경이나 사물에 대한 동일성의 고집은 반복적인 운동인 자기자극 행동 혹은 상동행동과 같은 반복적인 신체 움직임으로 나타나

기도 한다. 그들은 자신의 신체 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반복운동을 통해 안정을 얻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손바닥을 아래위로 흔들거나 손가락 끝을 서로 부딪쳐 자극하는 행동, 몸 흔들기 등으로 표현된다(한국통합교육학회, 2009).

## 7) 의사소통장애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많은 아동이 사회적 또는 정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남궁정, 2010). 말장애를 보이는 아동은 흔히 상대방으로부터 거절당하거나, 창피를 당하거나, 열등감을 경험하게 되며, 심하게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벌을 받는 경험까지도 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많은 아동이 낮은 자존감을 지니게 되며,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은 이들로 하여금 좌절과 분노를 경험하게 하고 때로는 적대감이나 위축행동까지도 보이게 한다(김봉순, 2013). 특히, 자신의 요구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아동의 경우 부적절한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시도하게 된다. 실제로, 학령기 말/언어장애를 지닌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서 행동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더 높으며, 많은 수가 정서 및 행동장애로까지 진단되는 것으로 보고된다(남궁정, 2010).

## 8) 학습장애

모든 학습장애 아동이 심각한 사회·정서적 문제를 보이는 것은 아니며, 특히 이들 중에는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여 또래에게 인기 있는 아동도 있다. 그러나 학습장애 아동의 약 75~80% 정도는 사회·정서적 측면에서 문제를 보인다(강혜진, 김자경, 2007). 학습장애 아동이 사회·정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이 지닌 학습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좌절감을 경험하거나 또래로부터 거부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일반 아동에 비하여 낮

은 자존감과 빈약한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학습된 무력감과 함께 여러 가지 사회-정서적인 문제를 보이게 되기 때문이다(이재섭, 최승숙, 2011). 학습장애 아동이 사회·정서적인 문제를 보이는 또 다른 이유는 이들이 사회적 능력에 있어서 결함을 보인다는 것이다(손희정, 박현숙, 2005). 즉, 상대방과의 대화 등의 사회적 상호작용 중에 사회적 단서를 잘 해석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느낌 상태를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회·정서적 문제는 앞에서 설명한 학업 성취에 있어서의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기도 하며, 또한 사회·정서적 문제가 학업 성취에 다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 9) 건강장애

건강장애 학생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경험한다.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인 어려움, 결석 및 치료로 인한 학업지체 및 인지손상, 또래 및 교사와의 어려움과 같은 사회적 관계의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박은혜, 김미선, 김정연, 2005). 건강장애 학생들은 오랜 치료와 병원생활로 인해 인지적·사회정서적·신체적 어려움을 가지게 되며 학교생활 적응 및 학습 문제의 어려움에도 직면하게 된다. 또한 건강장애 학생의 모든 치료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 ‘피곤함’은 학업수행에 지장을 주고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 사회 정서적 어려움은 입원으로 인한 일상에서의 소외, 질병과 치료에 따른 고통, 재발에 대한 염려, 장기결석, 가족 구성원의 기능 변화 등과 같은 경험에 의해 나타난다. 또한 건강장애 학생들은 심리적인 위축과 어려움 외에 만성질환 자체에서 오는 신체적인 고통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김은주, 2013).



## 10) 발달지체

발달장애 아동들은 사회 적응 능력이 부족하여 여러 가지의 생활에 적응함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낸다. 이들은 대인관계의 장애, 자기역할 수행하기 및 지시 따르기 등의 능력이 부족하며, 이러한 증상들은 집단내의 적응을 곤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발달장애 아동들은 집단 내에서의 적응 능력의 결함으로 심각한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초래하며 그것은 인지능력의 결함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 적응 능력의 특성은 아동기의 행동이나 심리, 정서적인 장애와 더불어 아동기 발달과 적응에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기 때문에 적기에 발견하여 도움을 준다면, 예방과 아동의 생활이나 진로를 위한 사회성 향상과 교육의 효과가 크다고 한다. 이러한 특성에 비추어 발달지체라는 용어는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 3. 우리나라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 1) 실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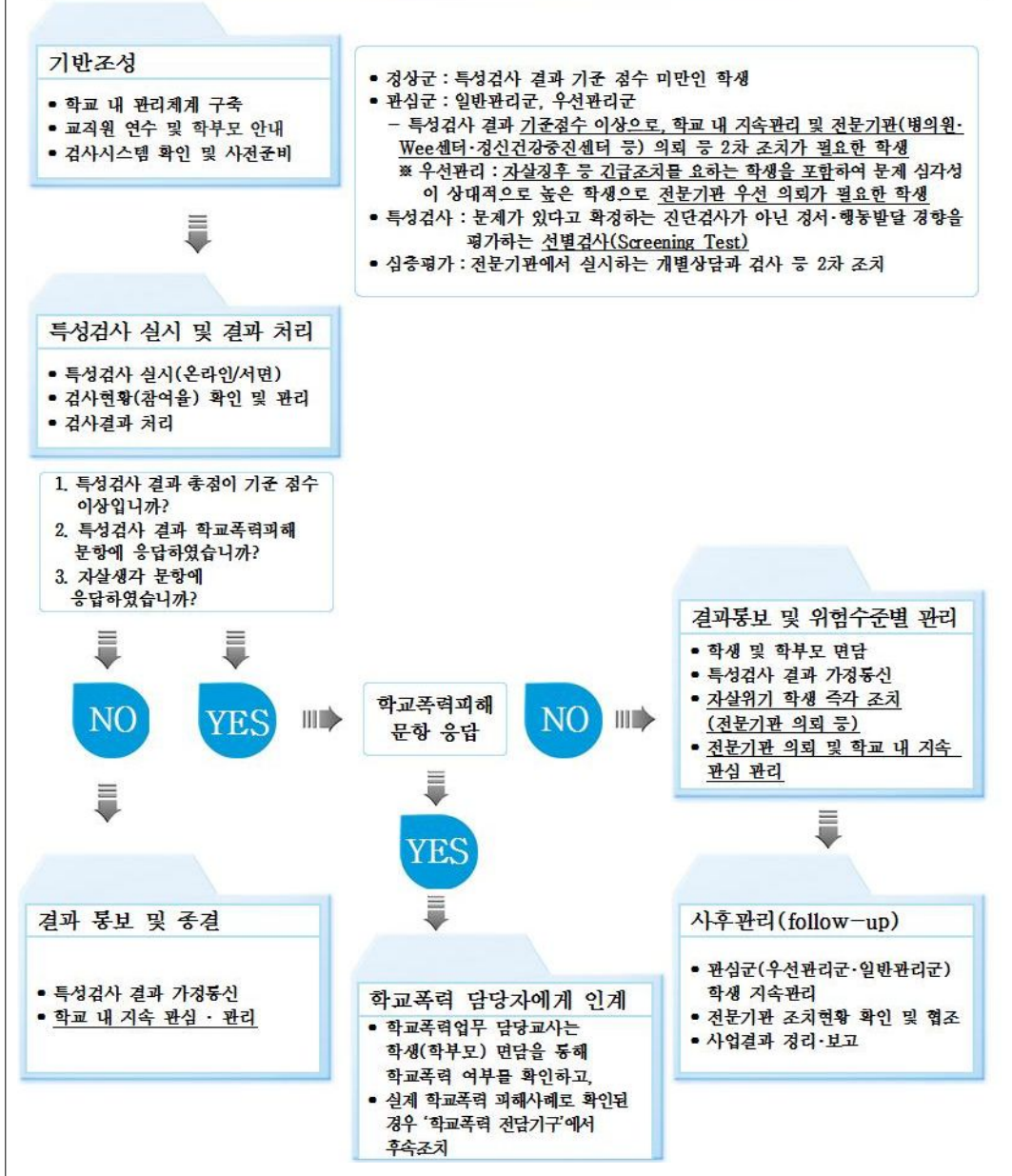
2007년부터 교육기본법 제 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학교보건법 제 2조의 2항(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정신보건법 제 4조(국가 등의 의무)와 학교건강검사규칙 제 4조의 2항(건강조사항목 및 방법)에 근거하여 학생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학생정신건강 실태조사와 학생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를 일부 시

범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고 시범학교의 수를 확대하다가 2012년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는 초 1,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교육부, 2014).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관리는 학생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탐지하고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초, 중, 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정서행동문제를 선별하고 관리, 지원하는 과정을 말하며(정경미 외, 2012),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유해환경과 과도한 입시 위주 교육환경 등으로 우려되고 있는 우울, 자살, 불안, 폭력, 비행, 주의력 결핍 등 학생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대처함으로써 조기 진단 및 정신건강문제의 악화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이진석, 이선영, 김명정, 최혜원, 한혜민, 2011).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 및 관리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검사결과 통보 및 처리, 검사결과 관리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검사는 학생 정서행동문제를 선별하는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을 말하며, 검사 결과의 통보 및 처리는 정상군과 관심군을 나누는 단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를 학부모에게 알리는 과정과 관심군(일반, 우선, 고위험) 학생의 문제 유형 및 심각성을 확인하는 단계로 구성되고, 검사결과 관리는 관심군 학생을 전문기관, 병의원으로의 연계, 의뢰, 학교 내 지속적 관리 단계로 이어지는 과정을 말한다(교육부, 2015).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관리에 대한 흐름도 및 검사지는 [그림 II-1]과 [그림 II-2]와 같다.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관리 흐름도



[그림 II-1]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 및 관리 흐름도

자료출처: 2015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 및 관리 매뉴얼(교육부, 2015)

### 초등학생용 아동 정서·행동특성검사지(CPSQ)

이 설문은 **초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정서, 행동을 알아보는 문항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관찰하신 자녀의 행동에 대해 해당란에 V표 해주십시오.**

학년, 반, 번호: \_\_\_ / \_\_\_ / \_\_\_,      성명: \_\_\_\_\_      성별: 남 / 여

문            항	적 험 없 음 (0)	약 간 중 등 (1)	상 당 히 중 등 (2)	아 주 중 심 (3)
1	너무 말랐거나 혹은 너무 뚱뚱하다.			
2	꿈지락거리거나 가만히 앉아있지 못한다.			
3	도벽이 있거나 거짓말을 자주 한다.			
4	우울한 기분으로 생활하는 일이 많다.			
5	정신을 잃고 쓰러진 적이 있다.			
6	성질이 급하고 참을성이 부족하다.			
7	지능이 낮다.			
8	무단결석 혹은 가출을 한 적이 있다.			
9	매사에 의욕이 없어 보인다.			
10	다른 아이들과 주먹질을 하며 싸운다.			
11	술 혹은 담배로 인해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다.			
12	어른(부모 혹은 교사)에게 반항적이거나 도전적이다.			
13	대소변 가리기에 문제가 있다.			
14	불만이 많고 쉽게 화를 낸다.			
15	양보심이 부족하다.			
16	불안하거나 긴장된 표정을 보인다.			
17	여기저기 자주 아프다(예; 두통, 복통 등).			
18	또래에 비해 읽기, 쓰기, 셈하기를 잘 못한다.			
19	언어발달이 늦어 대화에 지장이 있다.			
20	자신감이 부족하다.			
21	잘 먹지 않는다.			
22	컴퓨터(혹은 인터넷)를 너무 사용하여 생활에 문제가 있다.			
23	집중력이 짧고 주의가 산만하다.			
24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25	신경이 날카롭고 신경질적이다.			
26	틱(눈 깜박거림, 쿵쿵 소리내기, 어깨 으쓱거리기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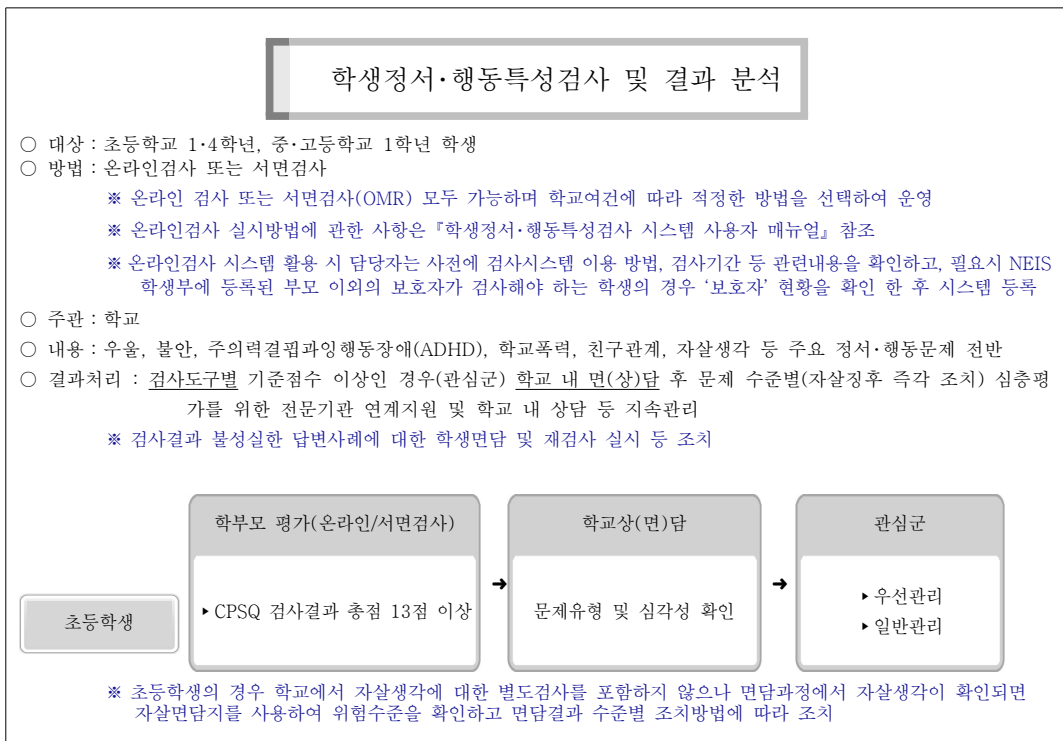
[그림 II-2] 아동정서·행동특성 검사지

자료출처: 2015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 및 관리 매뉴얼(교육부, 2015)

## 2) 실시 결과

먼저,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분석은 [그림 II-3]과 같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결과 분석에 따라 전국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2007년(97개 학교 31,187명), 2008년(245개 학교 7,380명),

2009년(470개 학교 126,159명), 2010년(1,126개 학교, 242,055명)에 ‘학생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밀검진 필요학생(우울, 불안, 자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음주, 흡연 약물, 비행 및 폭력, 인터넷중독, 성행동, 섭식장애 등의 정서행동문제 경향이 있는 아동)의 비율이 2007년 15.8%, 2008년 12.9%, 2009년 17.0%, 2010년 12.8%로 나타났다(김춘진, 2010). 2012년에는 우리나라 모든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학교 내 상담·관리 등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학생이 16.3%로 나타났다(교육과학기술부, 2013). 2013년도 전체학생 2,119,962명 중 ‘관심군’ 학생이 152,640명(7.2%)이며(교육부, 2014), 또한 2015년도에는 전체 검사 실시학생 1,910,257명 중 ‘관심군’ 학생이 60,709명(3.2%)인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15).



[그림 II-3]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 및 결과 분석

자료출처: 2015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 및 관리 매뉴얼(교육부, 2015)

## 4. 관련 선행연구

### 1)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특성

오직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연구 논문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왜냐하면 일반학교 안에 특수학급이 포함되어 단순히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일지라도 일반학생들과 비교하는 연구 논문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장애학생들은 일반학교에서 시간제 특수학급 형태로 통합학급에서 통합교육과 특수학급에서 특수교육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주요 상황은 현재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또한 통합교육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라는 것을 반영한다는 점으로 특수학급에만 초점을 맞춘 논문을 찾아보기 힘든 이유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특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논문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통합학급 상황에서 장애학생들이 어떠한 교육활동에서도 배제되지 않고 적절한 통합교육과 중재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학생들의 정서행동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통합학급 교사,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그 밖의 다른 구성원들과의 교류가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지만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특성에 관련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 2) 특수학교 장애학생의 정서행동특성

특수학교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에 초점을 맞춘 연구논문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김은화와 이승희(2007)에 의하면 정신지체 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정도는 8개 하위 증후군 중에서 사고의 문제, 사회적 미성숙, 주의집중의 문제 등이 다

른 중후군들보다 평균이나 임상범위가 높게 나타나 일반학생들이 보이는 정서 행동문제의 하위 내용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구본권(1998)의 연구는 서울 시내와 경기도에 있는 특수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아동 34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여기에는 지체장애 149명, 정신지체 87명, 정서장애 87명이 포함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 지체장애, 정신지체, 정서장애 집단 중에서 지체장애 집단의 점수가 가장 낮고, 정신지체, 정서장애 집단은 평균점수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남녀 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집단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행동은 주의가 산만한 행동이었으며, 신체적 행동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정서장애 집단에서 심각하며,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심하게 나타나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승국(1996)의 연구에서는 정신지체학생의 부적응행동과 일반학생의 부적응 행동은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며, 이러한 부적응 행동에는 공격행동, 반사회적 행동, 반항 행동, 신뢰성 없는 행동, 위축 행동, 부적절한 대인관계, 과잉행동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행동 중에는 일반학생보다 정신지체 학생에게 더 많이 발견되는 행동이 72%였으며, 반대로 일반학생보다 정신지체 학생에게 적게 발견되는 행동이 23% 정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지 발달이 이루어져야 할 수 있는 부적응 행동도 있으나, 인지 발달이 늦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적응 행동이 많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3) 초등학교 일반학생의 정서행동특성

초등학교 일반학생의 정서행동특성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백승영(2014), 홍태경과 류준혁(2010), 박진자(2002)에 의하면 학령기 학생들의 총행동문제,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는 학령이 올라갈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에서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 간의 정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강하남, 2013; 이정숙 외, 2009; 이정

미, 양명숙, 2006). 반면에 정서행동문제 아동들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았으며, 증후학적 특징으로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가 가장 많았고, 남학생에게서 파괴적 공격성 반항행동, 여학생에게서는 우울 및 불안 정서장애가 많았다(강지훈, 박성연, 2005; 고정자, 2003; 구미향, 이양희, 2003)). 그리고 전연진(2002)의 연구는 비행,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행동문제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고 하였다. 이경혜(2001)의 연구에서도 공격성과 불안 그리고 과잉행동이나 산만함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별의 차이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김은주와 이승희(2013)에 의하면 정서행동문제에 있어서 내재화문제(불안, 우울, 신체화)가 외현화문제(비행, 과잉행동)보다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고, 외현화문제(비행, 과잉행동)에 비해 내재화문제(불안, 우울, 신체화)의 임상비율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최진오(2011)의 연구에서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는 학년이 올라 갈수록 외현화 행동문제의 공격성이 높게 나타나고, 학업성취수준이 높아질수록 우울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오경자와 김영아(2011), 강현정과 국승희(2010), 윤혜미와 박병금(2005)의 연구에서는 불안/우울, 신체증상, 사회적미성숙에 대해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채영과 홍경자(2009)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문제행동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김정숙(2009)에 의하면 내재화 문제행동은 5학년이 약간 높게 나타나고,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외현화 문제행동인 비행 행동이 더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신은주, 2009). 서미정(2008)은 내재화 행동문제는 4, 5학년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다가 6학년에 증가하였고 남학생의 내재화 행동문제는 천천히 증가하였으며, 여학생은 4, 5학년까지 감소하다가 이후 급격히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초등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의 원인을 살펴보면, 신윤희(2007)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일수록 외현화 행동문제가 증가하며, 위축문제는 고학년일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영욱(2010)에 의하면 아동기는 자발성과 친밀감이 높아 학교생활의 만족도가 높고, 부모와의 의사소통 역시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초등학생들은 학교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정서행동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김덕임(2008)에 의하면 정서행동문제가 초등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재화문제인 사회불안과 신체화 증상을 많이 보인다고 하였으며, 초등학생들은 학교에서의 생활이 친구사귀기, 학업 등 많은 생활의 부분을 차지하게 되어, 친구문제, 학업문제, 자아존중감 등의 스트레스문제가 정서행동문제를 가져올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또한 학년에 따라 문제행동의 빈도와 유형차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많이 나타나며(이해경, 2013), 신호임(2004)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습과 관련된 문제행동 보다는 소극적, 회피적 문제행동 등이 많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처럼 정서행동문제의 정도와 유형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초등학교 일반학생의 정서행동특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연도별로 요약하여 제시하면 <표 II-3>과 같다.

<표 II-3> 초등학교 일반학생의 정서행동특성에 대한 선행연구 요약

연구자 (연도)	대상 학년	연구 결과
백승영 (2014)	학령기 (초,중,고)	학령기 학생들의 총행동문제,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는 학령이 올라갈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에서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음.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 간의 정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강하남 (2013)	학령기 (초,중,고)	성별에서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음.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 간의 정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김은주,이승희 (2013)	초등학교 (6학년)	내재화문제(불안,우울,신체화)가 외현화문제(비행,과잉행동)보다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고,외현화문제(비행,과잉행동)에 비해 내재화문제(불안,우울,신체화)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경향이 있었음.
이해경 (2013)	학령기 (초,중,고)	학년에 따라 문제행동의 빈도와 유형차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많이 나타났음.
오경자,김영아 (2011)	학령기 (초,중,고)	불안/우울,신체증상,사회적미성숙에 대해서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더 높은 문제행동을 보이는것으로 나타남.
최진오 (2011)	초등학교 (4~6학년)	학년이 올라 갈수록 남학생에게 외현화 행동문제의 공격성이 나타났음.
강현정,국승희 (2010)	학령기 (초,중,고)	불안/우울,신체증상,사회적미성숙에 대해서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더 높은 문제행동을 보이는것으로 나타남.

<표 II-3> (계속됨)

연구자 (연도)	대상 학년	연구 결과
이영옥 (2010)	학령기 (초,중,고)	아동기는 자발성과 친밀감이 높아 학교생활의 만족도가 높고 부모와의 의사소통 역시 좋은 것으로 나타났음.
홍태경,류준혁 (2010)	학령기 (초,중,고)	학령기 학생들의 총행동문제,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는 학령이 올라갈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에서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음.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 간의 정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기채영,홍경자 (2009)	초등학교 (1~6학년)	정서행동문제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줄어들었음.
김정숙 (2009)	초등학교 (4~6학년)	내재화 문제행동은 5학년이 약간 높게 나타나고,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외현화 문제행동인 비행 행동이 더 많이 나타남.
신은주 (2009)	학령기 (초,중,고)	내재화 행동문제는 4,5학년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다가 6학년에서 증가함. 남학생의 내재화 행동문제는 천천히 증가하였으며, 여학생은 4,5학년 까지 감소하다가 이후 급격히 증가함을 알 수 있었음.
이정숙 외 (2009)	초등학교 (4~6학년)	성별에서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음.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 간의 정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김덕임 (2008)	초등학교 (4~6학년)	정서행동문제는 초등학생들은 학년이 올라 갈수록 내재화문제인 사회불안과 신체화 증상을 더 많이 보였음.
서미정 (2008)	초등학교 (4~6학년)	내재화 행동문제는 4,5학년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다가 6학년에서 증가함.
신윤희 (2007)	초등학교 (4~6학년)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일수록 외현화 행동문제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재화 문제행동은 저학년일수록, 위축문제는 고학년일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정미,양명숙 (2006)	초등학교 (1~6학년)	여학생은 내재화 행동문제, 남학생은 외현화 행동 문제를 많이 보였음.
강지훈,박성연 (2005)	초등학교 (4~6학년)	정서행동문제 아동들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았으며, 증후학적 특징으로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가 가장 많았고, 남학생에게서 파괴적 공격성 반항행동, 여학생에서는 우울 및 불안 정서장애가 많았음.
윤혜미,박병금 (2005)	학령기 (초,중,고)	불안/우울,신체증상,사회적미성숙에 대해서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더 높은 문제행동을 보이는것으로 나타남.
신호임 (2004)	초등학교 (4~6학년)	4학년~6학년의 문제행동은 학년이 높을수록 문제행동의 빈도가 높았음.
고정자 (2003)	학령기 (초,중,고)	내재화문제가 여학생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음.
구미향,이양희 (2003)	초등학교 (1~6학년)	남학생은 외현화 문제가, 여학생은 내재화 문제가 더 많이 나타남.
박진자 (2002)	학령기 (초,중,고)	학령기 학생들의 총행동문제,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는 학령이 올라갈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에서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음.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 간의 정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전연진 (2002)	초등학교 (4~5학년)	비행,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행동문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이 보인다고 함.
이경혜 (2001)	초등학교 (1~6학년)	공격성과 불안 그리고 과잉행동이나 산만함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별의 차이가 높았음

### Ⅲ.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전남 소재 초등학교 특수학급 256개교에 재학하고 있는 전체 장애학생 1,070명 중 목적표집한 장애학생 256명(각 특수학급 학생 중 정서행동과 관련하여 가장 관심이 가는 학생 1명 선정)의 정서행동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장애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특수교사 256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장애학생 256명을 지도하는 특수교사(256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기초사항 질문지와 한국판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교사용)(오경자, 김영아, 2011)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175부 회수(회수율 68.90%), 기초사항 누락 및 불성실 답변 15부를 제외한 160부를 채택하여 최종 회수율 62.5%였다. <표 III-1>은 교사와 대상학생(160명)의 기초사항으로 교사의 성별, 근무학교 소재지, 연령, 특수교육경력, 학급규모 그리고 아동의 성별, 연령(만 나이), 장애유형을 포함하고 있다. <표 III-2>는 회수된 설문지의 전체학생 기초사항으로 성별 및 장애유형의 사례수 및 비율이 제시되어 있다.

<표 III-1> 교사와 대상학생의 기초사항

대상	특성	구분	n	%	계	
					N	%
교사	성별	남	40	25	160	100
		여	120	75		
	근무학교 소재지	중소 도시(동)	51	31.9	160	100
		읍·면	109	68.1		
	연령	20대	27	16.8	160	100
		30대	87	54.4		
		40대	23	14.4		
		50대	20	12.5		
		60대	3	1.9		
	특수교육경력	5년 이하	52	32.5	160	100
		6년~10년	66	41.3		
		11년~15년	37	23.1		
		16년~20년	0	0		
		21년~25년	1	0.6		
		26년 이상	4	2.5		
	학급규모	3명 이하	59	36.9	160	100
4명		40	25			
5명		16	10			
6명		20	12.5			
7명 이상		25	15.6			
학생	성별	남	123	76.9	160	100
		여	37	23.1		
	연령 (만 나이)	6세~10세	95	59.4	160	100
		11세~14세	65	40.6		
	장애유형	시각장애	0	0	160	100
		청각장애	0	0		
		지적장애	111	69.3		
		지체장애	2	1.3		
		정서·행동장애	15	9.4		
		자폐성장애	16	10		
		의사소통장애	0	0		
		학습장애	2	1.3		
		건강장애	0	0		
		발달지체	14	8.7		

<표 III-2> 전체학생의 기초사항

특성		구분	n	%	계	
					N	%
전체 학생	성별	남	417	61.4	679	100
		여	262	38.6		
	장애유형	시각장애	8	1.2	679	100
		청각장애	4	0.6		
		지적장애	464	68.3		
		지체장애	45	6.6		
		정서·행동장애	9	1.3		
		자폐성장애	53	7.8		
		의사소통장애	3	0.4		
		학습장애	62	9.1		
		건강장애	20	2.9		
		발달지체	12	1.8		
		기타	0	0		

###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교사용 설문지가 사용되었다. 설문지의 구성요소로 교사 및 학생에 대한 기초사항과 학생의 정서행동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교사용)로 구성되었다. 설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기초사항 질문지

기초사항은 연구대상과 관련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으며 기초사항 내용에는 교사에 대한 기초사항 6개 문항(성별, 근무학교 소재지, 연령, 특수교육 경력, 학급 규모, 학급 학생의 장애유형 및 성별)과 학생에 대한 기초사항 3개 문항

(성별, 연령, 장애유형)으로 구성되었다.

## 2)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교사용)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를 평가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교사용(K-TRF)」(오경자, 김영아, 2011)을 사용하였는데 TRF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표 III-3>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TRF의 문제행동척도만 사용되었으며 문제행동척도는 11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당 학생이 각 문항에 적힌 행동을 보였는지를 교사가 판단하여 3점 척도(0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1 가끔 그렇거나 그런 편이다, 2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로 평정하며 각 척도별로 T점수로 산출되었다.

<표 III-3> TRF 문제행동척도의 한국판·미국판·본연구 신뢰도(Cronbach  $\alpha$ )

척도	신뢰도(Cronbach's $\alpha$ )		
	한국(N=938)	미국(N=3,086)	본연구(N=160)
불안/우울	0.80	0.86	0.91
위축/우울	0.81	0.81	0.92
신체증상	0.71	0.72	0.92
사회적 미성숙	0.75	0.82	0.91
사고문제	0.62	0.72	0.91
주의집중문제	0.94	0.95	0.91
규칙위반	0.83	0.95	0.91
공격행동	0.92	0.95	0.91
내재화문제	0.87	0.90	0.91
외현화문제	0.94	0.95	0.91
총행동문제	0.97	0.97	0.90

## 4. 연구절차

본 연구의 특수학급 현황 및 특수학급 장애학생 현황 조사를 위해 전라남도 교육청 2015년 특수교육현황자료와 2015년 특수교육실태조사(국립특수교육원, 2015) 자료를 활용하였다. 하지만 전라남도교육청 2015년 특수교육현황자료의 특수학급 현황 및 장애학생현황은 256학급, 1,070명인 반면 2015년 특수교육실태조사(국립특수교육원, 2015) 자료의 특수학급 현황 및 장애학생현황은 257학급, 1,064명으로 다르게 나타났다(<표 II-1>과 <표 II-2> 참조).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주제에 부합한 전라남도교육청 자료를 기초로 표집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는 2015년 8월 25일을 기준으로 연구설계 및 설문지 작성 등 11월 12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실시되었다. 설문지 작성은 표집된 256개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 중 정서행동과 관련하여 가장 관심이 가는 학생 1명을 선정하여 그 아동을 지도하는 특수학급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아동의 기초사항 및 교사의 기초사항 그리고 K-TRF의 개념 및 평가방법을 설명하였다. 특수학급 담임교사는 아동의 정서행동 특성에 비추어 기초사항 질문지와 K-TRF를 작성하고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256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었고, 그 중 175부 회수(회수율 68.90%), 기초사항 누락 및 불성실 답변 15부를 제외한 160부를 채택하여 최종 회수율 62.5%로 이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 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의 자료분석은 SPSS 23.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구문제별로 다음과 같이 실시되었다. 첫째,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 문

제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K-TRF의 임상하위척도별로 T점수의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평균순위를 산출하였다.

둘째,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K-TRF의 임상하위척도별로 정상, 준임상, 임상 수준을 비율로 산출하여 준임상 및 임상 수준의 비율의 순위를 산출하였다.

셋째,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에 따른 성별, 연령, 학급규모, 장애영역에 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성별, 연령, 학급규모에 대한 내재화, 외현화, 총행동문제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고 정서행동문제 정도의 장애영역에 따른 차이는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총행동문제 등의 장애영역별 사례수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그 차이를 살펴보았다.

넷째,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유형에 따른 성별, 연령, 학급규모, 장애영역에 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성별, 연령, 학급규모에 대한 내재화, 외현화, 총행동문제의 정상, 준임상, 임상 수준의 사례수와 비율에 대한  $\chi^2$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정서행동문제 유형의 장애영역에 따른 차이는 장애영역별로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총행동문제에 대한 사례수와 비율을 구하여 그 차이를 살펴보았다.



## IV. 연구결과

본 연구는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정도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8개의 하위 증후군별 *T*점수의 평균, 표준편차, 순위 그리고 총행동문제,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T*점수의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표 IV-1>에 제시하였다.

<표 IV-1>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정도(*N*=160)

척도	<i>M</i>	<i>SD</i>	평균순위
불안/우울	62.23	9.04	6
위축/우울	61.23	8.80	7
신체증상	55.64	7.78	8
사회적미성숙	70.08	8.12	1
사고문제	65.54	9.45	3
주의집중문제	68.51	10.16	2
규칙위반	62.78	7.71	5
공격행동	65.14	9.60	4
내재화문제	63.99	12.49	-
외현화문제	65.87	11.23	-
총행동문제	70.41	11.77	-

<표 IV-1>에 나타난 바와 같이 8개 하위 증후군별 *T*점수의 평균은 사회적

미성숙 70.08, 주의집중 문제 68.51, 사고문제 65.54, 공격행동 65.14, 규칙위반 62.78, 불안/우울 62.23, 위축/우울 61.23, 신체증상 55.64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총행동문제 척도 T점수의 평균은 각각 63.99, 65.87, 70.41로 나타났다.

## 2.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유형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K-TRF 8개의 하위 증후군별 정서행동문제 유형(정상  $T < 65$ , 준임상  $65 \leq T < 70$ , 임상  $T \geq 70$ )과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총행동문제 척도에 대한 정서행동문제 유형(정상  $T < 60$ , 준임상  $60 \leq T < 64$ , 임상  $T \geq 64$ )의 빈도 수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2>에 제시하였다.

<표 IV-2>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유형

척도	유형						계(%)	준임상 비율 순위	임상 비율 순위
	정상		준임상		임상				
	n	%	n	%	n	%			
불안/우울	100	62.5	31	19.4	29	18.1	160(100.0)	6	5
위축/우울	118	73.7	20	12.5	22	13.8	160(100.0)	7	7
신체증상	140	87.5	9	5.6	11	6.9	160(100.0)	8	8
사회적미성숙	40	25	44	27.5	76	47.5	160(100.0)	5	1
사고문제	65	40.6	50	31.3	45	28.1	160(100.0)	3	3
주의집중문제	55	34.4	53	33.1	52	32.5	160(100.0)	2	2
규칙위반	90	56.3	45	28.1	25	15.6	160(100.0)	4	6
공격행동	69	43.1	61	38.1	30	18.8	160(100.0)	1	4
내재화문제	56	35	34	21.3	70	43.7	160(100.0)	-	-
외현화문제	39	24.4	22	13.8	99	61.8	160(100.0)	-	-
총행동문제	23	14.4	21	13.1	116	72.5	160(100.0)	-	-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유형은 <표 IV-2>에 나타난 바와 같이 8개의 각 척도별 빈도수(비율)로 불안/우울은 정상 100(62.5%), 준임상 31(19.4%), 임상 29(18.1%), 위축/우울은 정상 118(73.7%), 준임상 20(12.5%), 임상 22(13.8%), 신체증상은 정상 140(87.5%), 준임상 9(5.9%), 임상 11(6.9%), 사회적미성숙은 정상 40(25%), 준임상 44(27.5%), 임상 76(47.5%), 사고문제는 정상 65(40.6%), 준임상 50(31.3%), 임상 45(28.1%), 주의집중문제는 정상 55(34.4%), 준임상 53(33.1%), 임상 52(32.5%), 규칙위반은 정상 90(56.3%), 준임상 45(28.1%), 임상 25(15.6%), 공격행동은 정상 69(43.1%), 준임상 61(38.1%), 임상 30(18.8%)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8개 하위 척도별 준임상 비율 순위는 공격행동, 주의집중문제, 사고문제, 규칙위반, 사회적미성숙, 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증상 순으로 임상 비율 순위는 사회적미성숙, 주의집중문제, 사고문제, 공격행동, 불안/우울, 규칙위반, 위축/우울, 신체증상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행동문제 유형의 척도별 정상, 준임상, 임상 유형별 빈도수(비율)는 내재화문제가 정상 56(35%), 준임상 34(21.3%), 임상 70(43.7%)로 외현화문제는 정상 39(24.4%), 준임상 22(13.8%), 임상 99(61.8%)로 총행동문제는 정상 23(14.4%), 준임상 21(13.1%), 임상 116(72.5%)로 나타났으며 3가지 척도 모두 임상범위에 속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았고 내재화문제보다 외현화문제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3.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의 성별, 연령, 학급규모, 장애영역에 따른 차이

#### 1) 정서행동문제 정도의 성별에 따른 차이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총행

동문제) 정도의 성별(남학생, 여학생)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IV-3>과 같다. <표 IV-3>에 보이듯이 외현화문제와 총행동문제는 성별에 따른 정도의 차이가 없었으나 내재화문제는 남녀 성별 간에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t=2.695, p < .01$ ). 즉, 내재화문제 정도는 남학생( $M=65.45, SD=12.63$ )이 여학생( $M=59.32, SD=10.94$ )보다 높았다.

<표 IV-3>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의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

정서행동문제	남 ( $n=122$ )		여 ( $n=38$ )		<i>t</i>	<i>p</i>
	<i>M</i>	<i>SD</i>	<i>M</i>	<i>SD</i>		
내재화문제	65.45	12.63	59.32	10.94	2.695**	.008
외현화문제	65.80	11.76	66.11	9.445	-.148	.882
총행동문제	70.46	11.79	70.26	11.86	.089	.929

\*\*  $p < .01$ .

## 2) 정서행동문제 정도의 연령에 따른 차이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총행동문제) 정도의 연령(저연령-6세~10세, 고연령-11세~14세)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IV-4>과 같다. <표 IV-4>에 보이듯이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총행동문제 정도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의 연령에 따른 차이분석

정서행동문제	저연령(6~10세) ( $n=95$ )		고연령(11~14세) ( $n=65$ )		<i>t</i>	<i>p</i>
	<i>M</i>	<i>SD</i>	<i>M</i>	<i>SD</i>		
내재화문제	63.44	13.01	64.80	11.75	-.674	.501
외현화문제	66.37	10.51	65.14	12.25	.679	.498
총행동문제	70.39	11.36	70.45	12.43	-.030	.976

### 3) 정서행동문제 정도의 학급규모에 따른 차이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총행동문제) 정도의 학급규모(소규모-4명 이하, 대규모-5명이상)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IV-5>과 같다. <표 IV-5>에 보이듯이 내재화문제와 총행동문제는 학급규모에 따른 정도의 차이가 없었으나 외현화문제는 학급규모 간에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t=-2.322, p < .05$ ). 즉, 외현화문제 정도는 5명이상 대규모( $M=68.46, SD=10.73$ )의 학급규모가 4명이하 소규모( $M=64.27, SD=11.28$ )의 학급규모보다 높았다.

<표 IV-5>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의 학급규모에 따른 차이분석

정서행동문제	소규모(4명이하) (n=99)		대규모(5명이상) (n=61)		t	p
	M	SD	M	SD		
내재화문제	64.10	12.84	63.82	12.02	.138	.890
외현화문제	64.27	11.28	68.46	10.73	-2.322*	.022
총행동문제	69.57	11.41	71.79	12.29	-1.161	.247

\*  $p < .05$ .

### 4) 정서행동문제 정도의 장애영역에 따른 차이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의 장애영역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기술통계의 결과를 제시하면 <표 IV-6>과 같다. <표 IV-6>에 보이듯이 지적장애 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내재화문제( $M=64.87, SD=12.50$ ), 외현화문제( $M=65.34, SD=11.15$ ), 총행동문제( $M=70.48, SD=11.65$ )로 나타났고 자폐성장애 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내재화문제( $M=64.62, SD=12.39$ ), 외현화문제( $M=65.25, SD=8.54$ ), 총행동문제( $M=71.94, SD=11.99$ )로 정서·행동장애 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내재화문제( $M=61.20$ ,  $SD=14.79$ ), 외현화문제( $M=70.80$ ,  $SD=14.80$ ), 총행동문제( $M=69.40$ ,  $SD=13.81$ )로 발달지체 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내재화문제( $M=60.00$ ,  $SD=11.16$ ), 외현화문제( $M=65.50$ ,  $SD=11.72$ ), 총행동문제( $M=70.07$ ,  $SD=12.87$ )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습장애 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내재화문제( $M=68.00$ ,  $SD=0.00$ ), 외현화문제( $M=64.00$ ,  $SD=0.00$ ), 총행동문제( $M=65.00$ ,  $SD=0.00$ )로 지체장애 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내재화문제( $M=55.00$ ,  $SD=0.00$ ), 외현화문제( $M=67.50$ ,  $SD=0.71$ ), 총행동문제( $M=70.00$ ,  $SD=0.00$ )로 나타났다. <표 IV-6>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학습장애 학생과 지체장애 학생은 표집된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아 표준편차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6>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의 장애영역에 따른 차이

정서 행동 문제	지적장애 (n=111)		자폐성장애 (n=16)		정서·행동장애 (n=15)		발달지체 (n=14)		학습장애 (n=2)		지체장애 (n=2)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내재화문제	64.87	12.50	64.62	12.39	61.20	14.79	60.00	11.16	68.00	0.00	55.00	0.00
외현화문제	65.34	11.15	65.25	8.54	70.80	14.80	65.50	11.72	64.00	0.00	67.50	0.71
총행동문제	70.48	11.65	71.94	11.99	69.40	13.81	70.07	12.87	65.00	0.00	70.00	0.00

#### 4.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유형의 성별, 연령, 학급규모, 장애영역에 따른 차이

##### 1) 정서행동문제 유형의 성별에 따른 차이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유형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

는지 알아보기 위해  $\chi^2$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IV-7>에 제시된 것과 같다. <표 IV-7>에 보이듯이 성별에 따라 내재화문제 유형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7.684, p<.05$ ). 즉 준임상과 임상유형 비율에서 남학생이 18.1%, 31.2%로 여학생 3.8%, 5.6%에 비해 남학생의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표 IV-7>에서 보이듯이 성별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유형 중 외현화문제와 총행동문제 유형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유형의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

정서행동 문제	유형	남		여		계		$\chi^2$	p
		n	%	n	%	n	%		
내재화 문제	정상	43	26.9	23	14.4	66	41.3	7.684*	.021
	준임상	29	18.1	6	3.8	35	21.9		
	임상	50	31.2	9	5.6	59	36.8		
	계	122	76.2	38	23.8	160	100.0		
외현화 문제	정상	33	20.6	7	4.4	40	25.0	2.800	.247
	준임상	14	8.8	8	5.0	22	13.8		
	임상	75	46.8	23	14.4	98	61.2		
	계	122	76.2	38	23.8	160	100.0		
총행동 문제	정상	17	10.6	6	3.8	23	14.4	3.056	.217
	준임상	13	8.1	8	5.0	21	13.1		
	임상	92	57.5	24	15.0	116	72.5		
	계	122	76.2	38	23.8	160	100.0		

\*  $p < .05$ .

## 2) 정서행동문제 유형의 연령에 따른 차이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유형의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chi^2$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IV-8>에 제시된 것과 같다. <표 IV-8>에 보이듯이 연령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유형 중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 총행동문제 유형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8>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유형의 연령에 따른 차이분석

정서행동 문제	유형	저연령(6~10세)		고연령(11~14세)		계		$\chi^2$	p
		n	%	n	%	n	%		
내재화 문제	정상	43	26.9	23	14.4	66	41.3	4.052	.132
	준임상	23	14.4	12	7.5	35	21.9		
	임상	29	18.1	30	18.7	59	36.8		
	계	95	59.4	65	40.6	160	100.0		
외현화 문제	정상	20	12.5	20	12.5	40	25.0	5.188	.075
	준임상	10	6.3	12	7.5	22	13.8		
	임상	65	40.6	33	20.6	98	61.2		
	계	95	59.4	65	40.6	160	100.0		
총행동 문제	정상	12	7.5	11	6.9	23	14.4	3.809	.149
	준임상	9	5.6	12	7.5	21	13.1		
	임상	74	46.3	42	26.2	116	72.5		
	계	95	59.4	65	40.6	160	100.0		

## 3) 정서행동문제 유형의 학급규모에 따른 차이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유형의 학급규모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chi^2$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IV-9>에 제시된



것과 같다. <표 IV-9>에 보이듯이 학급규모에 따라 외현화문제 유형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8.123, p < .05$ ). 즉 정상유형의 비율은 소규모(4명이하)가 20.0%, 대규모(5명이상)가 5.0%로 소규모 비율이 높았고 준임상과 임상유형의 비율에서는 소규모(4명이하)가 8.8%, 33.1%로 대규모(5명이상) 5.0%, 28.1%에 비해 소규모(4명이하)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표 IV-9>에서 보이듯이 학급규모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유형 중 내재화문제와 총행동문제 유형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유형의 학급규모에 따른 차이분석

정서행동 문제	유형	소규모(4명이하)		대규모(5명이상)		계		$X^2$	$p$
		$n$	%	$n$	%	$n$	%		
내재화 문제	정상	46	28.8	20	12.5	66	41.3	4.356	.113
	준임상	17	10.6	18	11.3	35	21.9		
	임상	36	22.5	23	14.3	59	36.8		
	계	99	61.9	61	38.1	160	100.0		
외현화 문제	정상	32	20.0	8	5.0	40	25.0	8.123*	.017
	준임상	14	8.8	8	5.0	22	13.8		
	임상	53	33.1	45	28.1	98	61.2		
	계	99	61.9	61	38.1	160	100.0		
총행동 문제	정상	15	9.4	7	4.3	22	13.7	1.601	.449
	준임상	15	9.4	6	3.8	21	13.2		
	임상	69	43.1	48	30.0	117	73.1		
	계	99	61.9	61	38.1	160	100.0		

\*  $p < .05$ .

#### 4) 정서행동문제 유형의 장애영역에 따른 차이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유형의 장애영역에 따른 차이는

<표 IV-10>에 나타난 바와 같다. 첫째, 지적장애는 표집된 사례수( $n=111$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내재화문제 유형은 정상이 35.2%, 준임상, 임상이 각각 25.2%, 39.6%를 나타내었고 외현화문제 유형은 정상이 27.0%, 준임상, 임상이 각각 12.6%, 60.4%이었으며 총행동문제 유형은 정상이 13.5%, 준임상, 임상이 각각 13.5%, 72.0%으로 지적장애 전체영역에서 임상의 범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자폐성장애의 내재화문제 유형은 정상이 37.5%, 준임상, 임상이 각각 25.0%, 37.5%를 나타내었고 외현화문제 유형은 정상이 25.0%, 준임상, 임상이 각각 0%, 75.0%이었으며 총행동문제 유형은 정상이 6.3%, 준임상, 임상이 각각 18.7%, 75.0%로 자폐성장애 전체영역에서 임상의 범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정서행동장애의 내재화문제 유형은 정상이 73.3%, 준임상, 임상이 각각 6.7%, 20.0%로 정상의 범주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외현화문제 유형은 정상이 13.3%, 준임상, 임상이 각각 40.0%, 46.7%이었으며 총행동문제 유형은 정상이 33.3%, 준임상, 임상이 각각 6.7%, 60.0%로 외현화문제와 총행동문제 유형은 임상의 범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넷째, 발달지체의 내재화문제 유형은 정상이 57.1%, 준임상, 임상이 각각 14.3%, 28.6%로 정상의 범주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외현화문제 유형은 정상이 28.6%, 준임상, 임상이 각각 14.3%, 57.1%이었으며 총행동문제 유형은 정상이 14.3%, 준임상, 임상이 각각 14.3%, 71.4%로 외현화문제와 총행동문제 유형은 임상의 범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학습장애와 발달지체는 표집된 사례수( $n=2$ )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학습장애는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총행동문제에서 임상의 범주가 100%를 나타내었고 지체장애는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총행동문제에서 정상의 범주가 100%를 나타내었다.

<표 IV-10>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유형의 장애영역에 따른 차이

정서행동 문제	유형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서·행동장애		발달지체		학습장애		지체장애	
		n	%	n	%	n	%	n	%	n	%	n	%
내재화 문제	정상	39	35.2	6	37.5	11	73.3	8	57.1	0	0.00	2	100.0
	준입상	28	25.2	4	25.0	1	6.7	2	14.3	0	0.00	0	0.0
	입상	44	39.6	6	37.5	3	20.0	4	28.6	2	100.0	0	0.0
	계	111	100.0	16	100.0	15	100.0	14	100.0	2	100.0	2	100.0
외현화 문제	정상	30	27.0	4	25.0	2	13.3	4	28.6	0	0.00	2	100.0
	준입상	14	12.6	0	0.0	6	40.0	2	14.3	0	0.00	0	0.0
	입상	67	60.4	12	75.0	7	46.7	8	57.1	2	100.0	0	0.0
	계	111	100.0	16	100.0	15	100.0	14	100.0	2	100.0	2	100.0
총 행동 문제	정상	15	13.5	1	6.3	5	33.3	2	14.3	0	0.00	2	100.0
	준입상	15	13.5	3	18.7	1	6.7	2	14.3	0	0.00	0	0.0
	입상	81	72.0	12	75.0	9	60.0	10	71.4	2	100.0	0	0.0
	계	111	100.0	16	100.0	15	100.0	14	100.0	2	100.0	2	100.0

## V. 논의

### 1.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정도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8개의 하위 증후군별 T점수의 평균, 표준편차, 순위 그리고 총행동문제,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T점수의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먼저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중 내재화문제 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내재화문제의 하위 증후군별로 사회적미성숙 70.08, 주의집중문제 68.51, 사고문제 65.54, 불안/우울은 62.23, 위축/우울은 61.23, 신체증상은 55.6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재화문제 정도의 전체 T점수의 평균은 63.99로 나타났다. 이처럼 내재화문제 정도는 전반적으로 60T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표 IV-1> 참조).

다음으로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중 외현화문제 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외현화문제의 하위 증후군별로 공격행동 65.14, 규칙위반은 62.78로 공격행동이 규칙위반보다 높게 나타났고 외현화문제 정도의 전체 T점수의 평균은 65.87로 나타났다. 이처럼 외현화문제 정도 또한 전반적으로 60T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표 IV-1> 참조).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중 총행동문제 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총행동문제는 표집한 학생들 개개인의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등을 종합하여 산출한 결과로서 총행동문제 전체 T점수의 평균은 70.41로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면에 있어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표 IV-1> 참조).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내재화문제 T점수 평균은 63.99, 외현화문제 T점수

평균은 65.87로 외현화문제가 약간 높게 나타났고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이것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일수록 내재화문제보다 외현화문제가 많이 나타난다는 신윤희(2007)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학령기 학생들의 총행동문제,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는 학령이 올라갈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외현화문제 수준이 약간 높은 수준이었지만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간의 정도의 차이는 크지 않다는 백승영(2014)의 연구와 일치한다. 반면에 내재화문제(불안, 우울, 신체화)가 외현화문제(비행, 과잉행동)보다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고 외현화문제(비행, 과잉행동)에 비해 내재화문제(불안, 우울, 신체화)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인다는 김은주(2013)의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사용된 정서행동문제 측정도구에 따른 차이일 수 있는데 김은주(2013)의 연구에서는 KCPI-T의 비행과 과잉행동을 외현화문제로 간주한 데 비해 본 연구의 K-TRF는 비행과 공격성을 외현화문제로 간주하고 있어 아동기에 특히 많이 나타나는 과잉행동이 외현화문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총행동문제 T점수의 평균은 70.41로 전반적인 정서행동문제 정도가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결과를 해석할 때 평균만을 보게 되면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의 정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본 연구의 연구대상이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 중 정서행동과 관련하여 가장 관심을 가는 학생 1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충분한 표집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어떤 입장에서 수용할 것인지와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 전체 학생에 대한 후속연구들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유형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K-TRF

8개의 하위 증후군별 정서행동문제 유형(정상  $T < 65$ , 준임상  $65 \leq T < 70$ , 임상  $T \geq 70$ )과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총행동문제 척도에 대한 정서행동문제 유형(정상  $T < 60$ , 준임상  $60 \leq T < 64$ , 임상  $T \geq 64$ )의 빈도 수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중 내재화문제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내재화문제의 하위 증후군별 불안/우울은 정상이 62.5%(100명), 준임상이 19.4%(31명), 임상이 18.1%(29명)로 위축/우울은 정상이 73.7%(118명), 준임상이 12.5%(20명), 임상이 13.8%(22명)로 신체증상은 정상이 87.5%(140명), 준임상이 5.6%(9명), 임상이 6.9%(11명)로 사회적미성숙이 25%(40명), 준임상이 27.5%(44명), 임상이 28.1%(45명)로 주의집중은 34.4%(55명), 준임상이 33.1%(53명), 임상이 32.5%(52명)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내재화문제 증후군별 척도 중 주의집중, 사고문제, 사회적미성숙 등 학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를 많이 나타내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전반적인 내재화문제 유형은 정상이 35.0%(56명), 준임상이 21.3%(34명), 임상이 43.7%(70명)로 전체 160명 중 104명이 준임상 이상의 높은 수준의 내재화문제를 보였다(<표 IV-2> 참조).

다음으로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중 외현화문제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외현화문제 하위 증후군별 규칙위반은 정상이 56.3%(90명), 준임상이 28.1%(45명), 임상이 15.6%(25명)로 공격행동은 정상이 43.1%(69명), 준임상이 38.1%(61명), 임상이 18.8%(30명)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외현화문제 증후군별 척도 중 규칙위반 보다 공격행동에서 문제를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전반적인 외현화문제 유형은 정상이 24.4%(39명), 준임상이 13.8%(22명), 임상이 61.8%(99명)로 전체 160명 중 121명이 준임상 이상의 높은 수준의 외현화문제를 보였다(<표 IV-2> 참조).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중 총행동문제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총행동문제는 표집한 학생들 개개인의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등을 종합하여 산출한 결과로서 총행동문제는 정상이 14.4%(23명), 준임상이 13.1%(21명), 임상이 72.5%(116명)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준임상 이

상의 수준이 160명 중 137명, 86.0% 이상으로 전체적인 면에 있어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표 IV-2> 참조).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내재화문제를 보이는 학생이 43.7%로 70명, 외현화문제를 보이는 학생이 61.8%로 99명,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총행동문제를 보인 학생이 72.5%로 116명이 임상범위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학생의 경우 내재화문제를 보이는 학생이 20.1%, 외현화문제를 보이는 학생이 11.6%,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를 모두 보이는 학생이 25.8%로 내재화 문제가 외현화문제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는 보건복지부(2006) 조사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반면 정신지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김은화와 이승희(2007)의 연구는 외현화문제가 12.0%, 내재화문제가 1.9%를 나타내었고, 학교급 및 성별에 따른 학령기 학생들의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 유형차이를 연구한 백승영(2014)의 연구는 내재화문제가 (준)임상이 15.2%, 외현화문제는 (준)임상이 20.1%로 외현화문제가 내재화문제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는 점에서는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지만 그 비율은 상당한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가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사의 판단에 의해 학급 학생 중 정서행동과 관련하여 가장 관심이 가는 학생 1명만을 선정하여 실시되었기 때문에 특수학급 안에서 가장 정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장애 정도가 가장 심한 학생을 선정했을 개연성이 크다. 즉, 이 연구 결과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선행연구 결과와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단순히 교사의 판단이 아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피검사자가 그러한 기준에 따라 연구대상을 선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후속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순히 학생들이 나타내는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등 문제행동에 대한 평균 점수만을 보고 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의 유형을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3.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의 성별, 연령, 학급규모, 장애영역에 따른 차이

#### 1) 정서행동문제 정도의 성별에 따른 차이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총행동문제) 정도의 성별(남학생, 여학생)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산출하였다(<표 IV-3> 참조).

먼저 내재화문제 정도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내재화문제 정도에 있어 남학생, 여학생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2.695, p < .01$ ). 즉,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이 겪고 있는 내재화문제 정도는 남학생( $M=65.45, SD=12.63$ )이 여학생( $M=59.32, SD=10.94$ )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령기 학생들의 내재화문제 정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백승영(2014)과 서미정(2008)의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또한 선행연구들(강지훈, 박성연, 2005; 고정자, 2003)은 여학생에게 내재화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남학생들에게는 외현화문제가 많이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이 본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처럼 내재화문제가 남학생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고 백승영(2014)과 서미정(2008)의 선행연구 결과처럼 남학생과 여학생의 내재화문제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게 나타난 원인이 시대적 변화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남녀 간의 사회적인 역할 구분이 더욱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 또한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의 남학생과 여학생의 행동문제들은 학생들이 자라면서 성별에 관계없이 인정해야 할 현상이며, 특히 내재화문제 즉, 우울/불안 등은 자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최근 한림대 자살과 학생정신건강연구소(2015)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 성적비관 및 우울증으로



나타났으며, OECD 회원국 평균치(남학생 6.20%, 여학생 2.29%)보다 여학생의 비율은 더 높은 것(남학생 5.15%, 여학생 4.36%)으로 발표하였다. 이처럼 내재화문제와 관련하여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는 시대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추후 후속연구들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외현화문제 정도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외현화문제 정도에 있어 남학생, 여학생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승영(2014)의 연구에 의하면 학령기 학생들의 외현화문제 정도가 성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반면에 또다른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청소년의 행동문제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 비행, 공격성, 일탈도래와 어울리는 것과 같은 외현화문제를 더 많이 보인다(오경자, 김영아, 2011; 강현정, 국승희, 2010; 이정숙 외, 2009; 윤희미, 박병금, 2005)고 하였다. 이들은 본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처럼 선행연구에서는, 남학생은 외현화문제가, 여학생은 내재화문제가 주로 나타난다는 연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외현화문제에 있어서 남학생과 여학생 성별의 차이가 없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선행연구들의 시점에 비하여 최근의 사회 현상이 남녀 역할 구분이사라지고 있는 관점에서 크게 변화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총행동문제 정도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총행동문제 정도에 있어 남학생, 여학생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검사지 개발자 오경자와 김영아(2011)에 의하면 총행동문제에서는 남녀 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홍태경과 류준혁(2010)의 연구에서도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정서행동문제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대단히 주목할 만한 결과로서, 최근의 시대 흐름에서 남아와 여아의 구별이 없어짐에 따라 여아들의 자존감이 더 커지고, 이에 따라 남아에 대한 상대적인 열등의식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면, 오히려 여학생들의 문제행동이 줄어들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사뭇 상반되는 결과이다. 그러나 이것

은 역으로 볼 때, 남아가 우선시 되는 사회에서 남학생의 문제행동이 여학생보다 컸었던 기존의 현상과 비추어볼 때 한편으론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즉,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만큼이나 거친 행동을 서슴지 않게 된 사회적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현상은 또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남녀동등의 행동을 분별없이 받아들인 결과물일 수도 있겠지만 쉽게 단정할 수 없는 현상이며, 보다 심층적이고 폭넓은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2) 정서행동문제 정도의 연령에 따른 차이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총행동문제) 정도의 연령(저연령, 고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산출하였다(<표 IV-4> 참조).

먼저 내재화문제 정도의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내재화 정도에 있어 저연령(6~10세), 고연령(11~14세)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이 겪고 있는 내재화문제 정도는 저연령( $M=63.44$ ,  $SD=13.01$ )과 고연령( $M=64.80$ ,  $SD=11.75$ )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본 연구와 관련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왜냐하면 본 연구는 오직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학급 장애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본 연구가 저연령과 고연령의 내재화문제 정도를 논의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학교급에 따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백승영(2014)은 고등학생집단이 초저 집단, 초고 집단, 중학생 집단보다 내재화문제 정도가 높다고 하였다. 또한 서미정(2008)은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내재화문제는

아동기 보다 청소년기에 더 높거나 연령이 많아질수록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위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과 상반된 결과를 보이지만 이러한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연령 간 차이는 발달 단계상 변화가 그다지 크지 않은 초등학교 수준에서의 비교이기 때문에 정서행동문제 특히 내재화문제 차이 또한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 또한 예상 가능하고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정서행동문제의 연령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더욱더 많은 후속연구가 뒤따라야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외현화문제 정도의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외현화 정도에 있어 저연령(6~10세), 고연령(11~14세)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이 겪고 있는 외현화문제 정도는 저연령( $M=66.37, SD=10.51$ )과 고연령( $M=65.14, SD=12.25$ )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본 연구와 관련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왜냐하면 본 연구는 오직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학급 장애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본 연구가 저연령과 고연령의 외현화문제 정도를 논의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학교급에 따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백승영(2014)은 중학생집단과 고등학생집단이 각각 초고 집단보다 외현화문제 정도가 높다고 하였다. 또한 최진오(2011)는 초등학생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외현화행동문제의 공격성을 많이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위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과 상반된 결과를 보이지만 이러한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연령 간 차이는 발달 단계상 변화가 그다지 크지 않은 초등학교 수준에서의 비교이기 때문에 정서행동문제 특히 외현화문제 차이 또한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 또한 예상 가능하고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정서행동문제의 연령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더욱더 많은 후속 연구가 뒤따라야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총행동문제 정도의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총행동문제 정도에 있어 저연령(6~10세), 고연령(11~14세)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이 겪고 있는 연령에 따른 총행동문제 정도는 내재화문제 정도와 외현화문제 정도 보다 높은 수준이었지만 저연령( $M=70.39$ ,  $SD=11.36$ )과 고연령( $M=70.45$ ,  $SD=12.43$ )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본 연구와 관련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왜냐하면 본 연구는 오직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학급 장애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본 연구가 저연령과 고연령의 총행동문제 정도를 논의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학교급에 따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백승영(2014)은 고등학생집단이 초저 집단과 초고 집단보다 총행동문제 정도가 높다고 하였다. 또한 신호임(2004)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정서행동문제를 많이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위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과 상반된 결과를 보이지만 이러한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연령 간 차이는 발달 단계상 변화가 그다지 크지 않은 초등학교 수준에서의 비교이기 때문에 정서행동문제 총행동문제 차이 또한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 또한 예상 가능하고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정서행동문제의 연령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더욱더 많은 후속연구가 뒤따라야할 것으로 보인다.

### 3) 정서행동문제 정도의 학급규모에 따른 차이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총행동문제) 정도의 학급규모(소규모, 대규모)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산출하였다(<표 IV-5> 참조).

먼저 내재화문제 정도의 학급규모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내재화 정도에 있어 소규모(4명이하), 대규모(5명이상)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이 겪고 있는 내재화문제 정도는 소규모( $M=64.10$ ,  $SD=12.84$ )와 대규모( $M=63.82$ ,  $SD=12.02$ )가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본 연구와 관련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왜냐하면 본 연구는 오직 초등학교 특수학급만을 대상으로 소규모와 대규모의 차이를 구분하고 그 안에서 정서행동과 관련하여 가장 관심이 가는 학생 1명만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서 그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전무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학급규모별 내재화문제 정도에 대한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결과를 논의하는데 어려움을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가 학급규모에 따른 내재화문제 정도를 파악하고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후속연구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다음으로 외현화문제 정도의 학급규모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외현화 정도에 있어 소규모(4명이하), 대규모(5명이상)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2.322$ ,  $p < .05$ ). 즉,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이 겪고 있는 외현화문제 정도는 소규모( $M=64.27$ ,  $SD=11.28$ )보다 대규모( $M=68.46$ ,  $SD=10.73$ )가 높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정된 연구대상자들이 생활하는 특수학급의 학급규모가 대규모일수록 학생들이 외현적으로 문제행동을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이정숙(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경향성을 충분히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본 연구와 관련한 선행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왜냐하면 본 연구는 오직 초등학교 특수학급만을 대상으로 소규모와 대규모의 차이를 구분하고 그 안에서 정서행동과 관련하여 가장 관심이 가는 학생 1명만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서 그와 관련한 선행 연구는 전무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학급규모별 외현화문제 정도에 대한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결과를 논의하는데 어려움을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가 학급규모에 따른 외현화문제 정도를 파악하고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후속연구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총행동문제 정도의 학급규모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총행동문제 정도에 있어 소규모(4명이하), 대규모(5명이상)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이 겪고 있는 총행동문제 정도는 소규모( $M=69.57$ ,  $SD=11.41$ )와 대규모( $M=71.79$ ,  $SD=12.29$ )가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본 연구와 관련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왜냐하면 본 연구는 오직 초등학교 특수학급만을 대상으로 소규모와 대규모의 차이를 구분하고 그 안에서 정서행동과 관련하여 가장 관심이 가는 학생 1명만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서 그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전무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학급규모별 총행동문제 정도에 대한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결과를 논의하는데 어려움을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가 학급규모에 따른 총행동문제 정도를 파악하고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후속연구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4) 정서 행동문제 정도의 장애영역에 따른 차이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 행동문제 정도의 장애영역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기술통계의 결과를 산출하였다.

먼저 내재화문제 정도의 장애영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지적장애( $M=64.87$ ,  $SD=12.50$ ), 자폐성장애( $M=64.62$ ,  $SD=12.39$ ), 정서·행동장애( $M=64.62$ ,  $SD=12.39$ ),

발달지체( $M=60.00$ ,  $SD=11.16$ ) 순이었다. 즉, 내재화문제 정도는 지적장애가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발달지체가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그리고 학습장애 학생과 지체장애 학생은 표집된 사례 수( $n=2$ )가 충분하지 않아 논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행동문제 중 내재화문제 정도라는 점과 장애영역 중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특수학급에서 생활하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는 장애 특성상 내재화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더 많고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특수학급에서 내재화문제를 가장 많이 보이는 장애가 정신지체이고 내재화문제는 여학생에게서 더 많이 나타난다고 밝힌 이정미와 양명숙(2006)의 연구와 일치한다.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의 결과는 대단히 주목할 만한 결과로서, 단순히 이러한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으나 이와 관련한 더 많은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외현화문제 정도의 장애영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정서·행동장애( $M=70.80$ ,  $SD=14.80$ ), 발달지체( $M=65.50$ ,  $SD=11.72$ ), 지적장애( $M=65.34$ ,  $SD=11.15$ ), 자폐성장애( $M=65.25$ ,  $SD=8.54$ ) 순이었다. 즉, 이러한 결과를 살펴보면 외현화문제 정도는 정서·행동장애가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자폐성장애가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그리고 학습장애 학생과 지체장애 학생은 표집된 사례 수( $n=2$ )가 충분하지 않아 논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행동문제 중 외현화문제 정도라는 점과 장애영역 중 정서·행동장애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한 장애영역이 자폐성장애라는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특수학급에서 생활하는 정서·행동장애는 장애 특성상 외현화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이다. 정서·행동장애는 남학생의 비율이 더 많고 남학생에게서 파괴적 공격성 반항행동이 나타난다고 밝힌 강지훈과 박성연(2005)의 연구와 일치한다.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의 결과는 대단히 주목할 만한 결과로서, 단순히 이러한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으나 이와 관련한 더 많은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총행동문제 정도의 장애영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자폐성장

애( $M=71.94$ ,  $SD=11.99$ ), 지적장애( $M=70.48$ ,  $SD=11.65$ ), 발달지체( $M=70.07$ ,  $SD=12.87$ ), 정서·행동장애( $M=69.40$ ,  $SD=13.81$ ) 순이었다. 즉, 이러한 결과를 살펴보면 총행동문제 정도는 자폐성장애가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정서·행동장애가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그리고 학습장애 학생과 지체장애 학생은 표집된 사례 수( $n=2$ )가 충분하지 않아 논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행동문제 중 총행동문제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본 연구의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은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의 비율이 가장 많고 총행동문제 정도가 특수학교와 다르게 특수학급 안에서는 정서행동문제를 심각하게 드러내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이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외현화문제를 드러내는 정서·행동장애학생의 문제행동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이것은 특수학급에서 내재화문제와 비슷하게 총행동문제를 가장 많이 보이는 장애가 정신지체라고 밝힌 이정미와 양명숙(2006)의 연구와 어느 정도는 일치한다.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의 결과는 대단히 주목할 만한 결과로서, 단순히 이러한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으나 이와 관련한 더 많은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특수학급 장애학생 중 정서행동과 관련하여 가장 관심이 가는 학생 1명만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지적장애영역에 너무 치중한 결과가 나타났고 신뢰로운 결과를 얻기는 힘든 실정이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장애영역을 골고루 포함시켜 심층적이고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 4.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유형의 성별, 연령, 학급규모, 장애영역에 따른 차이

##### 1) 정서행동문제 유형의 성별에 따른 차이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유형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chi^2$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IV-7>에 제



시된 것과 같다.

먼저 내재화문제 유형(정상, 준임상, 임상)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chi^2$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성별에 따른 유형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표 IV-7>에 보이듯이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에서  $\chi^2=7.684$ ,  $p=.021$ 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내재화문제가 여학생에게 더 많이 나타났다는 선행연구(고정자, 2003)와는 달리 내재화문제가 남학생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즉, 남학생들의 내재화문제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를 보면, 백승영(2014)은 학령기 학생들의 내재화문제에서 성별에 따른 유형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고, 박진자(2002)는 학생들의 내재화 행동문제에서는 성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들은 본 연구 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 주고 있다. 이처럼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내재화문제 유형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고 남학생의 내재화문제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다시 말해서, 이는 선행연구들(고정자, 2003; 구미향, 이양희, 2003)에서와 같이, 남학생은 외현화문제가, 여학생은 내재화문제가 나타난다는 고정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결과로 주목할 만한 일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내재화문제가 나타나는 원인과 성별에 관하여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외현화문제 유형(정상, 준임상, 임상)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chi^2$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성별에 따른 유형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표 IV-7>에 보이듯이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에서  $\chi^2=2.800$ ,  $p=.247$ 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여학생들의 외현화문제가 증가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남학생들의 외현화문제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여학생의 외현화문제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보면, 학령기 학생들의 외현화문제 유형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백승영, 2014). 또한 신은주(2009)는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신체적 공격과 같은 외현화문제를 더 많이 보이는 반면, 여학생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행동을 하고 남학생들은 타인에 대해 외현적인 형태의 공격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더 많다고 하였다. 또한 본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성별에 있어서 남녀의 성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이정숙, 2009; 기채영, 홍경자, 2009; 김덕임, 2008; 이정미, 양명숙, 2006)도 이미 다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 위에 있고, 그 결과의 하나로서 외현화문제는 성차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향성을 염두에 두고, 성별에 따른 외현화문제 유형에 관한 후속연구와 그 변인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총행동문제 유형(정상, 준임상, 임상)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chi^2$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성별에 따른 유형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표 IV-7>에 보이듯이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에서  $\chi^2=3.056$ ,  $p=.217$ 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여학생의 문제행동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결과이며, 1가구 1자녀가 대부분인 현대의 가정상황은 물론, 여아와 남아의 구분을 두지 않는 시대적 분위기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정서행동문제가 더 많이 나타나고, 심각한 수준의 행동문제를 경험하였으며,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행동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정자, 2003). 또한 청소년의 행동문제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여학생들은 우울, 불안과 같은 내재화문제를 더 많이 보이는 반면,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 비행, 공격성, 일탈도래와 어울리는 것과 같은 외현화문제를 더 많이 보였다(김정숙, 2009; 이정미, 양명숙, 2006; 강지훈, 박성연, 2005). 이는 본 연구와 상반된 결과이다. 이와는 달리, 강하남(2013)은 여학생이 느끼는 정서적 및 심리적 스트레스가 남학생이 느끼는 그것들과 다르지 않다고 하였다. 이는 오늘날 사회상의 변화로 여학생들의 대담성이 커지고,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비행문제에 있어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없어지는 경향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백승영, 2014).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여학생들에 초점을 두어 문제행동의 현황과 원인에 대해 알아보는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2) 정서행동문제 유형의 연령에 따른 차이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유형의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chi^2$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IV-8>에 제시된 것과 같다.

먼저 내재화문제 유형(정상, 준임상, 임상)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chi^2$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연령에 따른 유형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표 IV-8>에 보이듯이 저연령 집단과 고연령 집단에서  $\chi^2=4.052, p=.132$ 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본 연구와 관련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왜냐하면 본 연구는 오직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학급 장애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본 연구가 저연령과 고연령의 내재화문제 유형의 차이를 논의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학교급에 따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백승영(2014)은 고등학생집단이 초저 집단, 초고 집단, 중학생 집단보다 내재화문제 유형에서 (준)임상 수준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서미정(2008)은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내재화문제는 아동기 보다 청소년기에 더 높거나 연령이 많아질수록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위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과 상반된 결과를 보이지만 이러한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연령 간 차이는 발달 단계상 변화가 그다지 크지 않은 초등학교 수준에서의 비교이기 때문에 정서행동문제, 특히 내재화문제 차이 또한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 또한 예상 가능하고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정서행동문제의 연령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더욱더 많은 후속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외현화문제 유형(정상, 준임상, 임상)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보기 위하여  $\chi^2$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연령에 따른 유형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표 IV-8>에 보이듯이 저연령 집단과 고연령 집단에서  $\chi^2=5.188$ ,  $p=.075$ 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외현화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개인, 가정, 학교요인)이 특정 연령에만 뚜렷하게 나타나기 보다는, 전 연령 모두에게 똑같은 원인(개인, 가정, 학교요인)과 심리적 스트레스가 작용하고 있으며, 그 스트레스 수준 또한 모든 연령을 막론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한다. 특히 예전에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나타났던 문제들(이성문제, 친구문제, 학업문제, 가정문제)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문제가 되어 버렸으며, 요즘 인터넷과 대중매체의 발달로 중독(게임, 인터넷, 핸드폰, 알코올, 음란물, 담배)이 외현화 행동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이혜경, 2013).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초등학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손쉽게 접할 수 있으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고, 모방행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또한 이런 현상을 제어하기 위한 사회 제도적인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결과는 다른 시각으로 보면, 저학년 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임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상급학교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도 있겠다. 따라서 저연령 집단에서부터 이러한 문제행동에 대한 대책과 해결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총행동문제 유형(정상, 준임상, 임상)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chi^2$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연령에 따른 유형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표 IV-8>에 보이듯이 저연령 집단과 고연령 집단에서  $\chi^2=3.809$ ,  $p=.149$ 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백승영(2014)의 연구에서 초저 집단의 비율이 10.5%, 초고 집단 9.7%로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는 결과와 일치한다. 위의 선행 연구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본 연구와 관련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왜냐하면 본 연구는 오직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학급 장애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본 연구가 저연령과 고연령의 총행동문제 유형의 차이를 논의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학교급에 따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신호임(2004)은 (준)임상 수준에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정서행동문제를 많이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이영옥(2010)에 의하면 아동기는 자발성과 친밀감이 높아 학교생활의 만족도가 높고, 부모와의 의사소통 역시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반면, 청소년들은 추종성과 임의성이 많고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고,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폐쇄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가 위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과 상반된 결과를 보이지만 이러한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총행동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동들의 발달단계에 따른 적절한 환경제공과 상담, 교육, 전문가와 전문기관의 도움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통합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겠다.

### 3) 정서행동문제 유형의 학급규모에 따른 차이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유형의 학급규모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chi^2$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IV-9>에 제시된 것과 같다.

먼저 내재화문제 유형(정상, 준임상, 임상)이 학급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chi^2$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학급규모에 따른 유형의 차이가 없으므로 나타났다. 즉, <표 IV-9>에 보이듯이 소규모(4명이하) 집단과 대규모(5명이상) 집단에서  $\chi^2=4.356$ ,  $p=.113$ 으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본 연구와 관련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왜냐하면 본 연구는 오직 초등학교 특수학급만을 대상으로 소규모와 대규모의 차이를 구분하고 그 안에서 정서행동과 관련하여 가장 관심이 가는 학생 1명만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서 그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전무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학급규모별 내재화문제 유형의 차이에 대한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결과를 논의하는데 어려움을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가 학급규모에 따른 내재화문제 유형의 차이를 파악하고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후속연구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다음으로 외현화문제 유형(정상, 준임상, 임상)이 학급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chi^2$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학급규모에 따른 유형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표 IV-9>에 보이듯이 소규모(4명이하) 집단과 대규모(5명이상) 집단에서  $\chi^2=8.123, p=.017(* p < .05)$ 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정된 연구대상자들이 생활하는 특수학급의 학급규모가 대규모일수록 학생들이 외현적으로 문제행동을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이정숙(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경향성을 충분히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본 연구와 관련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왜냐하면 본 연구는 오직 초등학교 특수학급만을 대상으로 소규모와 대규모의 차이를 구분하고 그 안에서 정서행동과 관련하여 가장 관심이 가는 학생 1명만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서 그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전무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학급규모별 외현화문제 유형의 차이에 대한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결과를 논의하는데 어려움을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가 학급규모에 따른 외현화문제 유형의 차이를 파악하고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후속연구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총행동문제 유형(정상, 준임상, 임상)이 학급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chi^2$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학급규모에 따른 유형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표 IV-9>에 보이듯이 소규모(4명이하) 집단과 대규모(5명이상) 집단에서  $\chi^2=1.601, p=.449$ 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본 연구와 관련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왜냐하면 본 연구는 오직 초등학교 특수학급만을 대상으로 소규모와 대규모의 차이를 구

분하고 그 안에서 정서행동과 관련하여 가장 관심이 가는 학생 1명만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서 그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전무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학급규모별 총행동문제 유형의 차이에 대한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결과를 논의하는데 어려움을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가 학급규모에 따른 총행동문제 유형의 차이를 파악하고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후속연구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4) 정서행동문제 유형의 장애영역에 따른 차이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유형의 장애영역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기술통계의 결과를 산출하였다.

먼저 내재화문제 유형의 장애영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준임상 수준에서의 순위는 지적장애 25.2%, 자폐성장애 25%, 발달지체 14.3%, 정서·행동장애 6.7%이었고 임상수준에서의 순위 역시 지적장애 39.6%, 자폐성장애 37.5%, 발달지체 28.6%, 정서·행동장애 20.0%이었다. 또한 더 살펴볼 점은 정상수준에서의 정서·행동장애가 73.3%라는 점이었다. 즉, 본 연구의 정서·행동장애 학생들은 내재화문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습장애 학생과 지체장애 학생은 표집된 사례 수( $n=2$ )가 충분하지 않아 논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행동문제 중 내재화문제라는 점과 장애영역 중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특수학급에서 생활하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는 장애 특성상 내재화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더 많고 학생 수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특수학급에서 내재화문제를 가장 많이 보이는 장애가 정신지체이고 내재화문제는 여학생에게서 더 많이 나타난다고 밝힌 이정미와 양명숙(2006)의 연구와 일치한다.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의 결과는 대단히 주목할 만한 결과로서, 단순히 이러한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으나 이와 관련한 더 많은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외현화문제 유형의 장애영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준임상, 임상 수준을 합한 순위는 정서·행동장애 86.7%, 자폐성장애 75.0%, 지적장애 73%, 발달지체 71.4%이었다. 즉, 이러한 결과를 살펴보면 준임상수준과 임상수준을 합한 외현화문제의 비율은 정서·행동장애가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발달지체가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임상수준에서 장애영역에 따른 외현화문제 차이를 비교하면 자폐성장애가 가장 높은 수준(75%)이었고 정서·행동장애가 가장 낮은 수준(46.7%)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준임상수준과 임상수준을 합한 결과가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 결과를 연구결과로 받아들이고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학습장애 학생과 지체장애 학생은 표집된 사례 수( $n=2$ )가 충분하지 않아 논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행동문제 중 외현화문제라는 점과 장애영역 중 정서·행동장애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특수학급에서 생활하는 정서·행동장애는 장애 특성상 외현화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이다. 정서·행동장애는 남학생의 비율이 더 많고 특수학급에서 생활하는 남학생에게서 파괴적 공격성 반항행동이 나타난다고 밝힌 강지훈과 박성연(2005)의 연구와 일치한다.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의 결과는 대단히 주목할 만한 결과로서, 단순히 이러한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으나 공격성과 반항행동 등 외현화문제는 예방이 특히 강조되므로 비록 낮은 비율이라 하더라도 임상수준의 외현화문제를 보이는 학생들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총행동문제 유형의 장애영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준임상, 임상수준을 합한 순위는 자폐성장애 93.7%, 발달지체 85.7%, 지적장애 85.5%, 정서·행동장애 66.7%이었다. 즉, 이러한 결과를 살펴보면 총행동문제 유형의 차이는 자폐성장애가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정서·행동장애가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그리고 학습장애 학생과 지체장애 학생은 표집된 사례 수( $n=2$ )가 충분하지 않아 논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행동문제 중 총행동문제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본 연구의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은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의



비율이 가장 많고 총행동문제 유형의 차이가 특수학교와 다르게 특수학급 안에서는 정서행동문제를 심각하게 드러내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외현화문제를 드러내는 정서·행동장애학생의 문제행동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이것은 특수학급에서 내재화문제와 비슷하게 총행동문제를 가장 많이 보이는 장애가 정신지체라고 밝힌 이정미와 양명숙(2006)의 연구와 어느 정도는 일치한다.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의 결과는 대단히 주목할 만한 결과로서, 단순히 이러한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으나 이와 관련한 더 많은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특수학급 장애학생 중 정서행동과 관련하여 가장 관심이 가는 학생 1명만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지적장애영역에 너무 치중한 결과가 나타났고 신뢰로운 결과를 얻기는 힘든 실정이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장애영역을 골고루 포함시켜 심층적이고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와 유형을 파악하고 정서행동문제 정도와 유형에 따른 성별, 연령, 학급규모, 장애영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위해 4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들을 중심으로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으며, 연구결과의 결론 및 연구의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결론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문제별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정도를 살펴보면 정서행동문제 정도 8개 하위 증후군별 *T*점수의 평균은 사회적 미성숙 70.08, 주의집중문제 68.51, 사고문제 65.54, 공격행동 65.14, 규칙위반 62.78, 불안/우울 62.23, 위축/우울 61.23, 신체증상 55.64 순으로 나타났다(<표 IV-1> 참조). 그리고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총행동문제 척도 *T*점수의 평균은 각각 63.99, 65.87, 70.41로 나타났다. 이것은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 정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발생정도에 있어서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즉,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실 상황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미성숙과 주의집중문제가 특히 높은 수준이었다.

둘째,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유형을 살펴보면 8개 하위척도별로 임상유형은 사회적 미성숙과 주의집중문제, 사고문제에서 가장 높

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내재화문제를 보이는 학생이 43.7%로 70명, 외현화문제를 보이는 학생이 61.8%로 99명,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총행동문제를 보인 학생이 72.5%로 116명이 임상범위로 나타났다. 이처럼 8개의 하위척도별 임상유형 비율의 순위는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고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정도 및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여 후속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중재 및 지원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의 성별, 연령, 학급규모, 장애영역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을 때 먼저,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내재화문제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외현화문제와 총행동문제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의 내재화문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외현화문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과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남학생과 여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연령에 따른 차이는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총행동문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초등학교 특수학급이라는 점에서 고려해 볼 만한 상황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발달의 차이가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서행동문제 정도 또한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본 연구에서도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달리 정서행동문제 정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학급규모에 따른 차이는 외현화문제에서는 소규모와 대규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내재화문제와 총행동문제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특수학급 교실 상황에서 학급규모가 클수록 외현화문제를 더 많이 나타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어느 정도는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학급규모에 대한 정서행동문제 정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만 하고 학급규모 안에서도 학생들의 개별화된 적절한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영역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정도의 차이는 본 연구의 결과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본 연구의 표집 사례수가 부족하고 표집된 사례 수 중에서 지적장애의 비중이 70% 이상으로 장애영역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장애영역의 사례수를 확보하고 이러한 장애영역의 차이에 대한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유형의 성별, 연령, 학급 규모, 장애영역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을 때 먼저,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내재화문제에서 정상, 준임상, 임상의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정상, 준임상, 임상의 외현화문제와 총행동문제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의 내재화문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외현화문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과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남학생과 여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유형의 차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연령에 따른 차이는 정상, 준임상, 임상의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총행동문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초등학교 특수학급이라는 점에서 고려해 볼 만한 상황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발달의 차이가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서행동문제 유형 또한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본 연구에서도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달리 정서행동문제 유형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학급규모에 따른 차이는 정상, 준임상, 임상의 외현화문제에서 소규모와 대규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내재화문제와 총행동문제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특수학급 교실 상황에서 학급규모가 클수록 외현화문제를 더 많이 나타낸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어느 정도는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영역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유형의 차이는 본 연구의 결과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본 연구의 표집 사례수가 부족하고 표집된 사

례 수 중에서 지적장애의 비중이 70% 이상으로 장애영역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는 것은 제한점이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장애영역의 사례 수를 확보하고 이러한 장애영역의 차이에 대한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향후 과제와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전남 소재 초등학교 특수학급 256개교에 재학하고 있는 전체 장애학생 1,070명 중 목적표집한 장애학생 256명(각 특수학급 학생 중 정서행동과 관련하여 가장 관심이 가는 학생 1명 선정)의 정서행동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장애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특수교사 256명이 연구대상으로 한정되어 있는 제한점이 있으며, 표집대상의 범위를 넓혔을 경우 다른 결과가 제시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더 폭넓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 학생의 정서행동 정도 및 유형에 대한 차이를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 하위 증후군 중에서 사회적 미성숙, 주의집중문제, 사고문제가 다른 증후군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장애학생들의 장애영역에 따른 기본적인 특성으로 인해 정서행동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인지, 그와는 다르게 가정이나 학교환경의 문제로 정서행동문제를 겪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수행되어 장애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중재 및 지원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 조사한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의 정도 및 유형 중 학급규모에 따른 차이에 대한 변인은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장

애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이나 결론을 도출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이은 후속연구가 계속적으로 실시되어 장애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의 정도 및 유형 중 학급규모에 대한 결과들이 일반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정도 및 유형의 성별, 연령, 학급규모, 장애영역에 따른 차이 분석을 통하여 장애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를 이해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었고 현재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과 그 영향에 대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 어느 정도까지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장애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와 관련된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관점에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다섯째,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K-TRF로 교사용 측정검사지이다. 아동·청소년들의 행동은 학교와 가정에서의 모습들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K-TRF는 교사용 검사지로서 교사들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측정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 참 고 문 헌

- 강지훈, 박성연 (2005). 남·녀 아동의 부적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4), 35-53.
- 강하남 (2013). 아동·청소년의 행복감과 스트레스 관계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전북.
- 강혜진, 김자경 (2007). 학습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사회적 기술 지식과 수행력 비교. 정서·행동장애연구, 23(2), 251-273.
- 강현정, 국승희 (2010). 내재화 장애 청소년과 외현화 장애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 보고와 청소년 보고의 양상. 한국심리학회지, 29(4), 907-925.
- 경기도교육청 (2010). 정신건강매뉴얼. 수원: 경기도교육청.
- 고영희 (2012). 초등학교 고학년의 사춘기 초기 적응을 위한 교육과정기준 개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서울.
- 고정자 (2003). 청소년의 개인변인과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변인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 가정학회지, 41(7)121-143.
- 교육과학기술부 (200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서울: 저자.
- 교육과학기술부 (2010). 2010 특수교육연차보고서. 서울: 저자.
- 교육과학기술부 (2011). 2011 특수교육통계. 서울: 저자.
- 교육과학기술부 (2013. 2. 8). 보도자료: '13년 학생정신 주요사업 추진계획 발표. 서울: 저자.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부 (2012). 제8차(2012) 청소년건강상태 온라인조사 통계. 충북: 청원.
- 교육부 (2014). 2013년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보도자료. 서울: 저자.
- 교육부 (2015). 2015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관리 매뉴얼. 서울: 저자.
- 교육인적자원부 (2005). 2005 특수교육연차보고서. 서울: 저자.
- 구미향, 이양희 (2003). 아동기 두려움과 행동문제의 특성 및 관련성 탐색. 초등교육연구,

- 16(1), 341-363.
- 구분권 (1998). 특수학교 교실행동 특성에 관한 연구. *인문과학논집*, 6, 85-111.
- 국립특수교육원 (2009). 특수교육학 사전. 안산: 국립특수교육원.
- 국립특수교육원 (2015). 특수교육실태조사. 안산: 국립특수교육원.
- 권미경, 김혜원, 안혜영, 이주원 (2005). 학령기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 태도와 아동의 문제행동. *아동간호학회지*, 11(1), 132-141.
- 권요한, 김수진, 김요섭, 박중휘, 이상훈, 이순복, . . . 정희섭 (2010). 특수교육학개론. 서울: 학지사.
- 기채영, 홍경자 (2009). 초등학생의 인지, 행동, 정서적 자기격려 연구: 성과 학년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놀이치료학회지(놀이치료연구)*, 12(1), 129-142.
- 김덕임 (2008).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수줍음 수준과 성별에 따른 내재화 문제 및 학교 적응의 차이.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대구.
- 김민영, 김영아, 오경자 (2012). 한국판 아동·청소년행동평가 척도 교사용(TRF) 표준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2), 367-391.
- 김봉순 (2013). 초등 저학년 단순언어장애 아동의 정서 이해의 특성.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경기도.
- 김삼섭, 박은송 (2012). 통합학급교사를 위한 지체장애 학생교육. 서울: 학지사.
- 김선자, 조옥귀 (2003).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자기존중감 및 행동문제의 관계. *교육이론과 실천*, 13(1), 316-385.
- 김수주, (2002). 중고등학생의 학교스트레스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서울.
- 김수진, 이정숙, 권영란, 오미라, 김보영 (2009). 고등학생용 정신건강 및 문제행동선별질문지 (AMPQ)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대한간호학회지*, 39(5), 700-708.
- 김승국 (1996). 정신지체 아동의 부적응 행동 연구. *특수교육논집*, 13, 17-34.
- 김승국 (2003). 특수교육의 발전과 통합교육의 추진. 서울: 특수교육.
- 김애숙 (1993). 초등학교 아동의 성별에 따른 공격유형과 비합리적 신념의 관계. 미간행



-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부산.
- 김영아, 이 진, 김유진, 김민영, 오경자 (2011). 한국판 유아행동평가 척도 교사용(C-TRF)의 표준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2), 65-86.
- 김영환, 김정현, 김하경, 박선희, 박정식, 엄태식, . . . 홍정숙 (2012). 특수아동의 이해. 서울: 태영출판사.
- 김용석, 모선영, 최현정, 이자영 (2008).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현황과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어린이 재단.
- 김원경, 조홍중, 허승준, 추연구, 윤치연, 박중휘 (2009). 특수교육학(제2판). 서울: 학지사.
- 김은주 (2013). 건강장애 학생을 위한 병원학교 운영 지원체계의 타당화 연구.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6(3), 109-132.
- 김은주, 이승희 (2013). 초등학교 자아탄력성과 정서행동문제의 관계 및 학업성취수준별 차이. *정서·행동장애연구*, 29(2), 25-44.
- 김은화, 이승희 (2007). 특수학교 정신지체학생의 정서·행동문제 특성과 관련변인. *특수교육학연구*, 42(3), 187-217.
- 김일명, 김원경, 조홍중, 허승준, 추연구, 윤치연, . . . 이신동 (2013). 최신특수교육학(제3판). 서울: 학지사.
- 김재철, 최지영 (2010).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 및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개인별 변화에 대한 친한 친구 관련 변수의 영향. *한국청소년 연구*, 21(1), 123-147.
- 김진호, 박재국, 방명애, 안성우, 유은정, 윤치연, 이호신 (2007). 최신 특수교육(8판). 서울: 시그마프레스.
- 김춘진 (2010. 8. 18). 초·중·고생 12.8% 정신건강 적신호. <http://www.cjkorea.org> 에서 인출.
- 김희화, 김경연 (2000). 청소년의 비행과 자아존중감 간의 인과적 관계에 대한 종단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5), 15-24.
- 남궁정 (2010). 학령기 단순언어장애 아동의 정서어휘이해력 특성.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남소현, 김영희 (2000).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요인과 아동의 외현적·내면적 부적응행동. 대

- 한가정학회지. 38(10). 199-213.
- 노현숙 (2002).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문제행동의 관련성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김해.
- 민성길, 김한중, 오경자, 이해련, 김진학, 신의진 (1997). 학교를 중심으로 한 초등학생들의 정서 및 행동문제에 관한 연구. 신경학회지, 36(5), 821-822.
- 민윤희 (2015). 제주도지역 보호관찰 청소년의 가족건강성, 학교적응성, 자아탄력성과 정서행동문제간의 관계분석.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광주.
- 박순희 (2014). 시각장애아동의 이해와 교육(제3판). 서울: 학지사.
- 박원희, 김기창, 김영일, 김영옥, 이은주, 신현기, . . . 양경희 (2009). 특수교육학. 경기도 광주: 교육과학사.
- 박은혜, 김정연 (2010). 지체장애 학생교육. 서울: 학지사.
- 박은혜, 김미선, 김정연 (2005). 건강장애 학생이 겪는 어려움과 지원 방안에 대한 질적 연구. 특수교육연구, 12(1), 223-243.
- 박진자 (2002). 청소년의 정서 및 행동문제에 대한 K-CBCL과 K-YSR 실시 결과의 비교 연구: 제주도내 청소년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광주.
- 방명애, 이효신 (2013). 정서 및 행동장애. 서울: 시그마프레스.
- 백승영 (2014). 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아동과 청소년 정서행동문제의 정도 및 유형 차이.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광주.
- 보건복지부 (2006).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프로그램. 서울: 저자.
- 보건복지부 (2008). 정신보건 사업안내. 서울: 저자.
- 서미정 (2008). 초기 청소년의 내재화 행동문제 변화에 대한 성별 및 학업성취감의 영향력 검증: 우울/불안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9(4), 115-138.
- 손희정, 박현숙 (2005). 자기결정기술교수가 초등학교 학습장애 학생의 자기인식과 자기옹호에 미치는 효과. 학습장애연구, 2(1), 93-144.
- 송준만, 강경숙, 김미선, 김은주, 김정효, 김현진, . . . 정귀순 (2013). 지적장애아교육. 서울: 학지사.

- 신윤희 (2007). 초등학생들의 외현화 및 내재화와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간의 관계연구. 특수교육생활과학연구, 46(4), 289-303.
- 신은주 (2009). 청소년의 부적응적 사고와 자기통제력이 내면화-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대구.
- 신지현 (2009). 정서발달을 위한 효과적인 미술교육 프로그램 연구: 중학교 1,2학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대학원, 부산.
- 신현숙, 박용재, 박주희, 류정희 (2006). 교사보고형 초등학생 학교적응행동 평정척도의 개발과 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3(2), 1-26.
- 신호임 (2004). 초등학생의 문제행동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강원도.
- 양재원, 노일석, 홍성도, 김지혜 (2005). 기질특성이 청소년기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 신경정신의학회, 44(3), 350-356.
- 오경자, 김영아 (2011). ASEBA 아동·청소년 행동평가 척도 매뉴얼. 서울: (주)휴노.
-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하은혜 (1991). 문항분석을 통한 한국판 CBCL의 임상 유용도 검증. 소아 청소년 정신의학, 2(1), 138-149.
-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하은혜 (1997). K-CBCL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하은혜 (2001). K-YSR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오영경 (2010). 청소년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2(4), 51-64.
- 오영진, 김영희 (2010). 청소년기 내재화 문제행동의 발달궤적 양상과 유형화 예측변인. 대한가정학회지, 48(10), 89-103.
- 유재연, 윤희봉, 임경원, 고동영, 박경옥, 이태수 (2009). 특수교육의 이해. 서울: 시그마프레스.
- 윤지선 (2011).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스트레스. 미간

- 행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인천.
- 윤혜미, 박병금 (2005). 청소년의 내재화문제 및 외현화문제행동 관련요인-생태계적 관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8(1), 133-164.
- 이경남 (2002). 청소년의 애착, 자아존중감 및 충동통제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8), 191-206.
- 이경주 (1997).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및 행동문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광주.
- 이경혜 (2001). 학령기 아동의 공격성 행동장애 출현율: 연령차 및 성차를 중심으로. 정서·학습장애연구, 17(2), 93-116.
- 이명숙, 이승희 (2003). 초등학생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교사의 이해와 지도에 관한 연구. 발달장애학회지, 7(2), 71-85.
- 이성봉, 방명애, 박지연, 김은경 (2014). 정서 및 행동장애(제2판). 서울: 학지사.
- 이소현, 박은혜 (2011). 특수아동교육(3판). 서울: 학지사.
- 이수연, 이승희 (2012).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청소년과 교사간의 평가차이 및 관련변인. 특수교육학연구, 47(1), 63-85.
- 이승희 (2011). 응용행동분석, 특수교육, 정서·행동장애에 대한 긍정적 행동지원의 관계 고찰. 특수교육학연구, 46(2), 107-132.
- 이승희 (2012). 정서행동장애 정의와 출현의 개념 및 관계에 대한 체계적 고찰. 정서·행동장애연구, 28(3), 37-58.
- 이영옥 (2010). 발달단계 측면에서 본 일상적 스트레스가 아동·청소년이 지각한 환경과 심리적 문제에 미치는 변인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서울.
- 이은아, 정혜정 (2000). 가정환경 변인에 따른 청소년의 비행 연구. 한국가정과학회지, 3(2), 1-12.
- 이재섭, 최승숙 (2011). 자기주장훈련 중재프로그램이 경도 장애학생의 자기인식과 자기옹호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2(4), 113-136.
- 이정미, 양명숙 (2006). 청소년 전환기 문제행동: 가정 및 학교환경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 7(3), 856-883.
- 이정숙, 김수진, 김보영, 권영란, 정혜정, 정복순 (2009). 일 지역 저소득 가정 아동의 정서행  
동문제.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2(2), 113-124.
- 이진석, 이선영, 김명정, 최혜원, 한혜민 (2011). 학생정신건강관리 체계 운영 실태 분석을 통  
한 문제점 확인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충북교육청.
- 이한철 (2001).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와 문제행동 간의 관계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  
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이해경 (2013). 비행 청소년들의 내재화/외현화문제에 미치는 생활부적응문제들의 영향력과  
성차. 청소년복지연구, 15(3), 295-319.
- 이효신 역 (2007) 정서 및 행동장애: 이론과 실제. 서울: 시그마프레스.
- 장선철 (2009). 특수아동교육. 서울: 태영출판사.
- 장연심 (2003).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장용백 (2000). 초등학교의 스트레스 수준과 문제행동과의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강  
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강원도.
- 장은경 (2000). 외현화 내현화 장애집단의 부모-자녀 상호작용 행동특성.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서울.
- 전연진 (2002). 삼세대 가족관계 경험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아동의 행동문제 미치  
는 영향. 미간행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서울.
- 정경미, 양재원, 김현수, 강지현, 이주영, 송현주, . . . 현경 (2012).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위한 교사 상담 실무. 부산: 부산광역시 교육청.
- 정대영 (2013). 특수교육학. 서울: 창지사.
- 정동영, 김주영, 김형일, 김희규, 정동일 (2010). 특수아동의 이해. 경기도 파주: 교육과학사.
- 정선미, 김진호 (2009). 초등학교 고학년의 감정표출불능증과 신체화 증상과의 관계. 한국학  
교보건학회지, 22(2), 125-135.
- 정성태 (1998). 체육과 교육. 서울: 창지사.

- 조수철, 김다정, 김봉년, 김수진, 김은영 (2011). 자폐장애. 서울: 학지사.
- 조수철, 김봉년, 정동선, 황준원, 신민섭, 류인균, . . . 김효원 (2006). 지역사회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아동의 기질 및 성격특성.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7(2), 124-130.
- 좌현숙, 변귀연 (2010).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전환과정에서 내재화문제의 변화양상과 예측요인. *학교사회복지*, 19(1), 113-1140.
- 최억승 (1992). 정서부적응 아동의 지도 방법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관동대학교 일반대학원, 강릉.
- 최재영 (2006). 아동후기 초등학교 학생들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관동대학교 대학원, 서울.
- 최진오 (2011). 초등학생들의 ADHD성향과 사회기술 수준간의 관계분석. *아동교육학회지*, 2(1), 265-278.
-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학회 (2012). 청각장애아동교육. 경기도 파주: 양서원.
- 한국통합교육학회 (2009). 통합교육. 서울: 학지사
- 한림대 자살과 학생정신건강연구소 (2015). 학교위기 상황에서 학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강원도 춘천: 저자
- 한미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각과 행동문제. 미간행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 한상철 (2003). 청소년 행동문제. 서울: 학지사.
- 현명선, 남경아, 안영미, 김미영 (2005). 여자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청소년, 학부모, 교사의 인식. *정신간호학회지*, 14(1), 13-22.
- 홍태경, 류준혁 (2010). 성별과 연령에 따른 청소년 비행요인의 비교분석. *한국치안행정논집*, 8(2), 113-138.
- Adelman, H. S., & Taylor, L. (2006). Mental health in schools and public health. *Public Health Reports*, 121(3), 294-298.
-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1997). *Guidelines for adolescent preventive services(GAPS)*. Chicago: Department of Adolescent Health,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 Blanchard, L. T., Gurka, M. J., & Blackman, J. A. (2006). Emotional, developmental, and behavioral health of American children and their families: A report from the 2003 National Survey of Children's Health. *Pediatrics*, *117*(6), 1202-1212.
- Daly, B. P., Burke, R., Hare, I., Mills, C., Owens, C., Moore, E., Weist, M. D., (2006). Enhancing no child left behind-school mental health connections. *Journal of School Health*, *76*(9), 446-451.
- Everett, S. A., Kann, L., & McReynolds, L. (1997). The youth risk behavior surveillance system: Policy and program applications. *Journal of School Health*, *67*(8), 333-335.
- Flaherty, L. T., & Osher, D. (2003). History of school-based mental health services in the United States. In M. D. Weist, S. W. Evans & N. A. Lever (Eds.), *Handbook of School Mental Health: Advancing Practice and Research* (pp. 11-22). New York, NY: Springer.
- Kann, L., Brener, N. D., & Wechsler, H. (2007). Overview and summary: School health policies and programs study 2006. *Journal of School Health*, *77*(8), 385-397.
- Kendall, P. C. (2006). *Coping cat workbook*. Ardmore, PA: Workbook Publishing.
- Kim, Y. S., Cheon, K. A., Kim, B. N., Chang, S. A., Yoo, H. J., Kim, J. W., . . . Leventhal, B. (2004).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kiddie-schedule for affective disorders and schizophrenia-present and lifetime version-Korean version(K-SADS-PL-K). *Yonsei Medical Journal*, *45*(1), 81-89.
- Kyle, T. M., Brener, N. D., Kann, L., Ross, J. G., Roberts, A. M., Iachan, R., . . . McManus, T. (2007). Methods: School health policies and programs study 2006. *Journal of School Health*, *77*(8), 398-407.

- Martin, A., Volkmar, F. R., & Lewis, M. (2007). *Lewis's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A comprehensive textbook* (4th ed.). Philadelphia, PA: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 Nemeroff, R., Levitt, J., Faul, L., Wonpat-Borja, A., Bufferd, S., Setterberg, S., Jensen, P. (2008). Establishing ongoing, early identification programs for mental health problems in our schools: A feasibility study.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47(3), 328-338.
- Parker, H. C. (2006). *The ADHD handbook for schools: Effective strategies for identifying and teaching students with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Plantation, FL: Specialty Press.
- Sayal, K. (2005). Annotation: Pathways to care for children with mental health problem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7(7), 649-659.
- Weist, M. D., Rubin, M., Moore, E., Adelsheim, S., & Wrobel, G. (2007). Mental health screening in schools. *Journal of School Health*, 77(2), 53-58.
- Wilkinson, W., & Lagendijk, M. (2007). ADHD in the Classroom: Symptoms and treatment. In M. Fitzgerald, M. Bellgrove & M. Gill (Eds.), *Handbook of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pp. 395-413). New York, NY: John Wiley & Sons Ltd.



# 부 록

# 설문지

## 「전남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특성」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0000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전남지역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많은 업무와 수업으로 바쁘시겠지만 설문내용을 잘 읽어 보신 후,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 응답에 필요한 시간은 약 15분 정도이며 00월 00일까지 동봉된 회신용 봉투에 넣어서 반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작성되며, 응답해 주신 내용은 오직 본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선생님의 앞날에 무한한 영광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 00월 00일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백 세 형 드림  
지도교수 이 승 희

연락처 E-mail : 000000@hanmail.net

직장전화 : 061-000-0000

휴대전화 : 010-0000-0000

## I. 기초사항 질문지

기 입 요 령
1. 각 문항의 응답에 해당되는 항목을 골라 그 번호 앞의 ____부분에 “√”표시를 해 주시거나, ( ) 안에 간략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학생 기초사항’은 선생님의 학급 학생 중 정서행동과 관련하여 가장 관심이 가는 <u>학생 1명을 선정하여</u> 작성해 주시고, 이 학생에 대하여 다음 면의 ‘II. 아동·청소년 행동 평가척도’를 작성해 주십시오.

교사 기초사항	
1. 선생님의 성별 __1) 남 __2) 여  2. 선생님의 근무학교 소재지 __1) 중·소 도시(동) __2) 읍·면  3. 선생님의 연령 __1) 20대 __2) 30대 __3) 40대 __4) 50대 __5) 60대  4. 선생님의 특수교육 경력 __1) 5년 이하 __2) 6년~10년 __3) 11년~15년 __4) 16년~20년 __5) 21년~25년 __6) 26년 이상  5. 선생님의 학급 규모 __1) 3명 이하 __2) 4명 __3) 5명 __4) 6명 __5) 7명 이상	6. 선생님 학급 학생의 장애유형 및 성별 __1) 시각장애 (남    명)(여    명) __2) 청각장애 (남    명)(여    명) __3) 지적장애 (남    명)(여    명) __4) 지체장애 (남    명)(여    명) __5) 학습장애 (남    명)(여    명) __6) 발달지체 (남    명)(여    명) __7) 건강장애 (남    명)(여    명) __8) 자폐성장애 (남    명)(여    명) __9) 정서행동장애 (남    명)(여    명) __10) 의사소통장애 (남    명)(여    명) __11) 기타 (            )
	학생 기초사항
	7. 학생의 성별 __1) 남 __2) 여  8. 학생의 나이 (    만    세 )  9. 학생의 장애유형(위 6번 응답 참고) (                            )

## II. 아동·청소년 행동 평가척도(교사용)

**기 입 요 령**

각 문항을 읽고 학생의 행동이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이면 0에 '가끔 그렇거나 그런 편이다'이면 1에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이면 2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번호	내용	정도		
		0	1	2
1	나이에 비해 너무 어리게 행동한다.			
2	수업 중 흥얼거리거나 이상한 소리를 낸다.			
3	말다툼을 많이 한다.			
4	자기가 시작한 일을 끝내지 못한다.			
5	즐기는 것이 매우 적다.			
6	선생님들께 반항적이며 말대답을 한다.			
7	허풍치고 자랑을 많이 한다.			
8	집중력이 없고 어떤 일에 오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			
9	어떤 생각들을 마음에서 떨쳐내지 못한다. (구체적 내용: )			
10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며 지나치게 많이 움직인다.			
11	어른들에게 붙어 있으려 하거나 너무 의존적이다.			
12	외로움을 호소한다.			
13	혼란스러워하거나 갈피를 못 잡는다.			
14	잘 운다.			
15	안절부절 못한다.			
16	남에게 잔인한 짓을 하거나 괴롭히고 못살게 군다.			
17	공상을 하거나 멍하게 자기 생각에 빠지곤 한다.			
18	고의로 피해를 하거나 자살기도를 한다.			
19	자기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기를 요구한다.			
20	자기 물건을 부순다.			
21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부순다.			
22	지시를 잘 따르지 못한다.			
23	학교에서 말을 안 듣는다.			
24	다른 학생들을 방해한다.			
25	다른 학생들과 잘 어울려 지내지 못한다.			
26	잘못된 행동(버릇없이 굴거나 나쁜 짓을 하고도 잘못했다고 느끼는 것 같지 않다.			
27	샘을 잘 낸다.			
28	학교에서 규율을 어긴다.			
29	특정한 동물이나 상황, 장소(학교는 제외)를 두려워한다. (구체적 내용: )			
30	학교에 가는 것을 겁낸다.			
31	나쁜 생각이나 나쁜 행동을 할까 두려워한다.			
32	스스로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33	아무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불평한다.			
34	남들이 자기를 해치려 한다고 느낀다.			
35	자기가 가치가 없거나 남보다 못하다고 느낀다.			
36	잘 다치거나 사고를 잘 당한다.			

번호	내용	정도		
		0	1	2
37	싸움을 많이 한다.			
38	놀림을 많이 받는다.			
39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과 어울려 다닌다.			
40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는 것을 들을 때가 있다. (환청)(구체적 내용: )			
41	충동적이거나 생각해보지 않고 행동한다.			
42	다른 사람들과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			
43	거짓말을 하거나 남들을 속인다.			
44	손톱을 깨문다.			
45	신경이 날카롭고 곤두서 있거나 긴장되어있다.			
46	몸을 움찔거리거나 등 신경과민성 동작을 보인다. (눈 깜빡임, 안면 질룩거림 등 포함)(구체적 내용: )			
47	지나칠 정도로 규칙을 잘 따른다.			
48	다른 학생들이 싫어한다.			
49	배우는 것을 잘 깨치지 못한다.			
50	지나치게 겁이 많거나 불인해 한다.			
51	어지러워 한다.			
52	지나치게 죄책감을 느낀다.			
53	자기가 말할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이야기 한다.			
54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치게 피곤해한다.			
55	체중이 너무 나간다.			
56	뚜렷한 의학적 원인이 나타나는 신체적 문제가 있다.			
	a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 (배나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경우는 제외)			
	b 두통			
	c 메스꺼움			
	d 눈의 이상 (안경으로 교정된 문제는 제외) (구체적 내용: )			
	e 발진 혹은 기타 피부의 이상			
	f 배앓이 혹은 복통			
	g 구토			
	h 기타(구체적 내용: )			
57	남을 신체적으로 공격한다.			
58	코를 후비거나 피부 또는 신체이 다른 부위를 뜯는다. (구체적 내용: )			
59	수업 중에 잔다.			
60	무관심하거나 의욕이 없다.			
61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은 편이다.			
62	운동신경이 좋지 않고 움직임이 어설피다.			

번호	내용	정도		
		0	1	2
63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아이들과 있는 것을 더 좋아한다.			
64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과 있는 것을 더 좋아한다.			
65	말을 하지 않으려 한다.			
66	특정한 행동을 계속 되풀이 한다. (구체적 내용: )			
67	학급의 규율을 흐려 놓는다.			
68	고함을 많이 지른다.			
69	숨기는 것이 많고 남에게 속을 털어놓지 않는다.			
70	헛것을 볼 때가 있다. (환시) (구체적 내용: )			
71	남의 이목을 많이 의식하거나 쉽게 무안해 한다.			
72	과제나 일을 엉망으로 한다.			
73	무책임하게 행동한다. (구체적 내용: )			
74	과시하거나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한다.			
75	지나치게 수줍어하거나 소심하다.			
76	충동적이고 행동을 예측할 수 없다.			
77	요구사항들을 즉각적으로 들어주어야 하고 쉽게 좌절한다.			
78	집중을 잘 못하고 쉽게 산만해진다.			
79	말하기(언어)에 문제가 있다. (구체적 내용: )			
80	명하니 허공을 응시하곤 한다.			
81	나무라면 쉽게 마음이 상한다.			
82	물건이나 돈을 훔친다.			
83	필요 없는 물건들을 많이 모아 둔다. (구체적 내용: )			
84	비정상적인 이상한 행동을 한다. (구체적 내용: )			
85	비정상적인 이상한 생각을 한다. (구체적 내용: )			
86	고집이 세고 시무룩해지거나 짜증을 부린다.			
87	감정이나 기분이 갑자기 변하곤 한다.			
88	자주 부루퉁해진다.			

번호	내용	정도		
		0	1	2
89	의심이 많다.			
90	욕을 하거나 상스러운 말을 쓴다.			
91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92	학습이 부진하고, 자신의 능력만큼을 발휘하지 못하는 듯하다.			
93	지나치게 수다스럽다.			
94	남을 잘 놀린다.			
95	성미가 급하고 제 뜻대로 안되면 데굴데굴 구른다.			
96	성(sex)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한다.			
97	남을 위협한다.			
98	학교나 수업에 지각한다.			
99	담배를 피운다.			
100	주어진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			
101	학교를 빼 먹는다: 무단결석			
102	비활동적이고 행동이 느리며 기운이 없다.			
103	불행해 보이고 슬퍼하거나 우울해한다.			
104	유난히 소란스럽다.			
105	술을 마시거나 치료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약물을 사용한다. (담배는 제외) (구체적 내용: )			
106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너무 신경을 쓴다.			
107	학교를 싫어한다.			
108	실수를 할까 봐 두려워한다.			
109	징징 우는 소리를 한다.			
110	용의가 단정치 못하다.			
111	위축되서 남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한다.			
112	걱정을 한다.			
113	위에 적힌 문제 외에 해당 학생이 보이는 문제가 있다면 아래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 추 후 편 지

### 「전남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정서행동특성」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학교 일로 바쁘신 줄 알면서도 귀한 시간의 할애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보내드린 설문지는 잘 받아 보셨는지요? 이미 응답하여 반송하셨다면 감사드리고, 아직 반송하지 않으셨다면 바쁘시더라도 기일(00월 00일)내에 보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설문지를 아직 받아 보지 못하셨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속히 보내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할애해 주신 시간과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2015년 00월 00일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백 세 형 드림  
지도교수 이 승 희

연락처 E-mail : 000000@hanmail.net

직장전화 : 061-000-0000

휴대전화 : 010-0000-0000